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군산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요약본

KMAPlus 한국농협협회플러스



군산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CHAPTER

| 인구 구조 분석



[PART 1] 군산시 단위

[PART 2] 읍면동 단위

1. 인구 구조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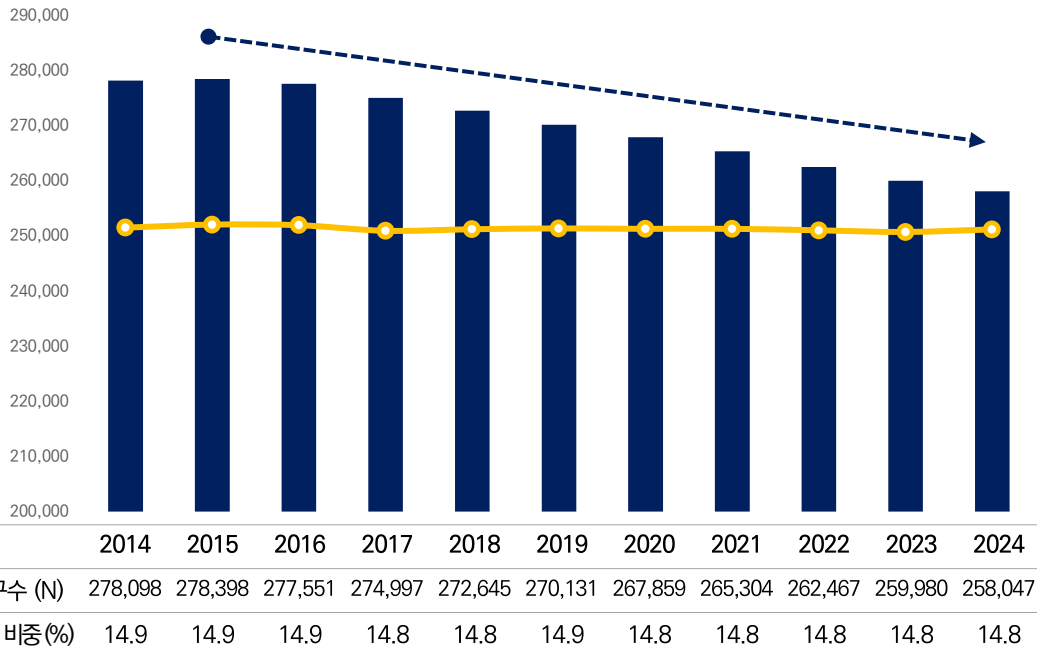
군산시 인구 변화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 군산시 인구는 2015년 27.8만명 수준에서 지속 감소하여 2024년 현재 25.8만명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증감율은 -7.2%
- 전북도 내 군산시의 인구 비중은 약 15% 수준에서 최근 10년간 유지되는 모습이며, 이는 군산시의 인구 감소 추이가 전북도 전반의 감소 경향과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냄
- 군산시의 인구 감소 속도(-7.2%)는 전주시(-2.6%)보다 높고, 익산시(-11.9%)보다는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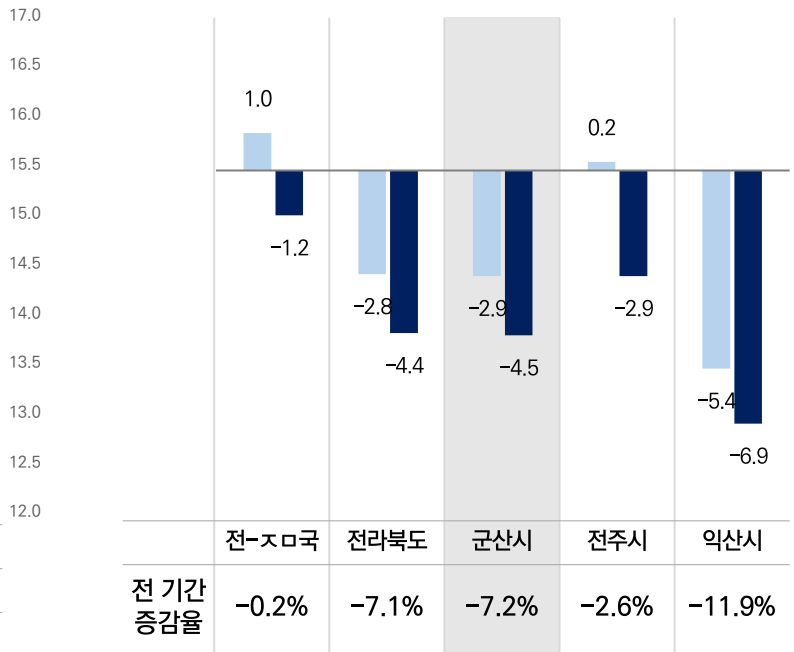
군산시 인구 및 전북도 내 비중 변화 (단위: 명)

■ 총 인구 ○ 전라북도 내 비중(%)



최근 10년간 인구 증감율* (단위: %)

■ 2014-2019 ■ 2019-2024



* 인구 증감율 = (최종연도값-최초연도값)/ 최초연도값 x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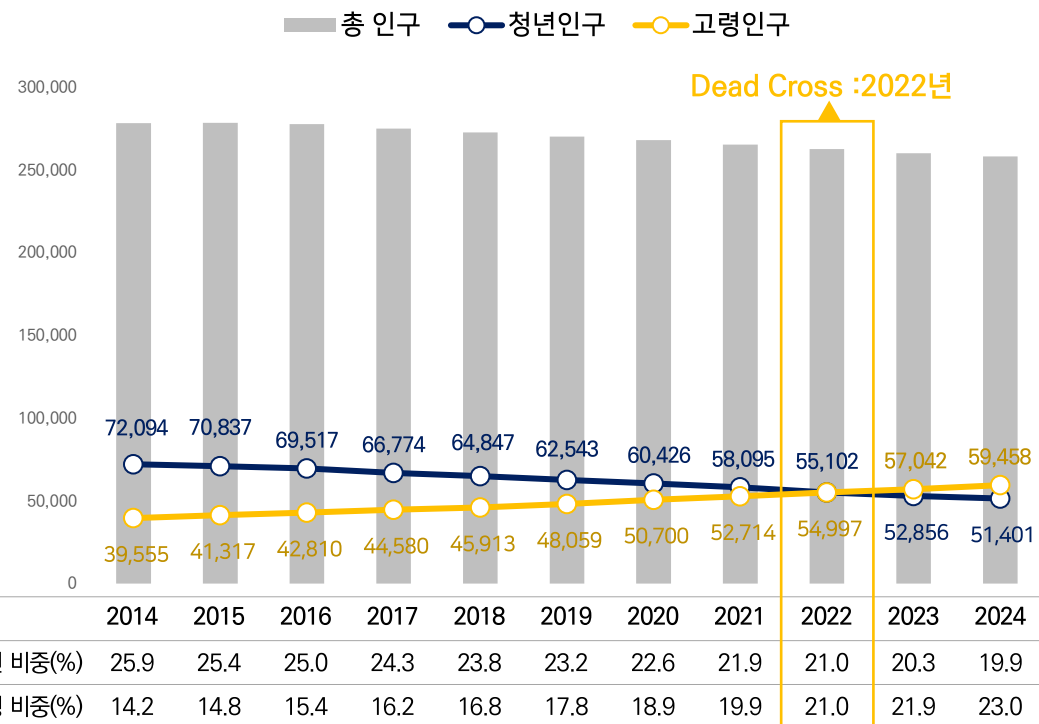
1. 인구 구조 및 변화

연령별 인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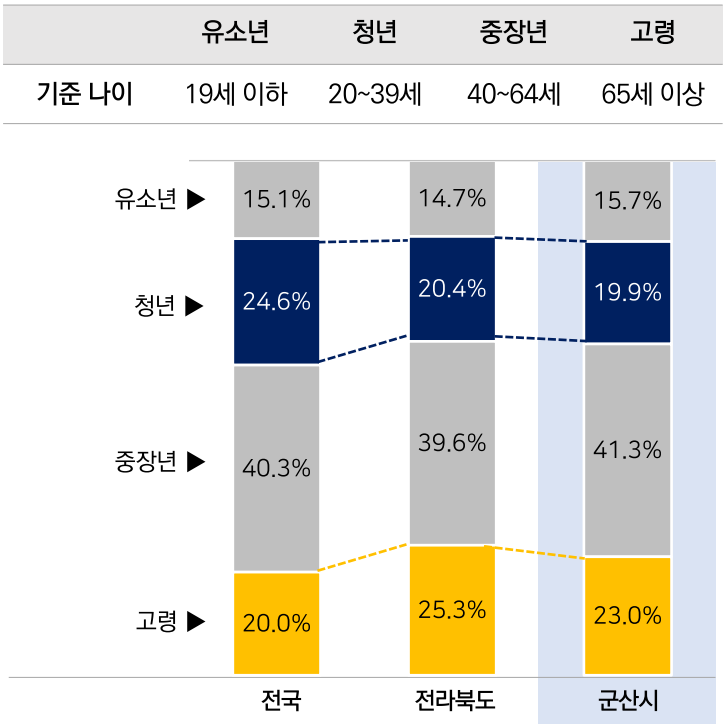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 최근 10년 간 군산시의 청년인구(20~39세)는 7.2만명 수준에서 5.1만명 수준으로 지속 감소
-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3.9만명 수준에서 5.9만명 수준으로 지속 상승하였으며, 2022년을 기점으로 청년인구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였음
- 2024년 현재 군산시의 청년 비중 및 고령 비중은 전북도 전체 대비 낮은 편

청년 인구 vs. 고령 인구 변화 (단위 : 명)



연령별 인구 분포 (2024년 기준) (단위 : %)



1. 인구 구조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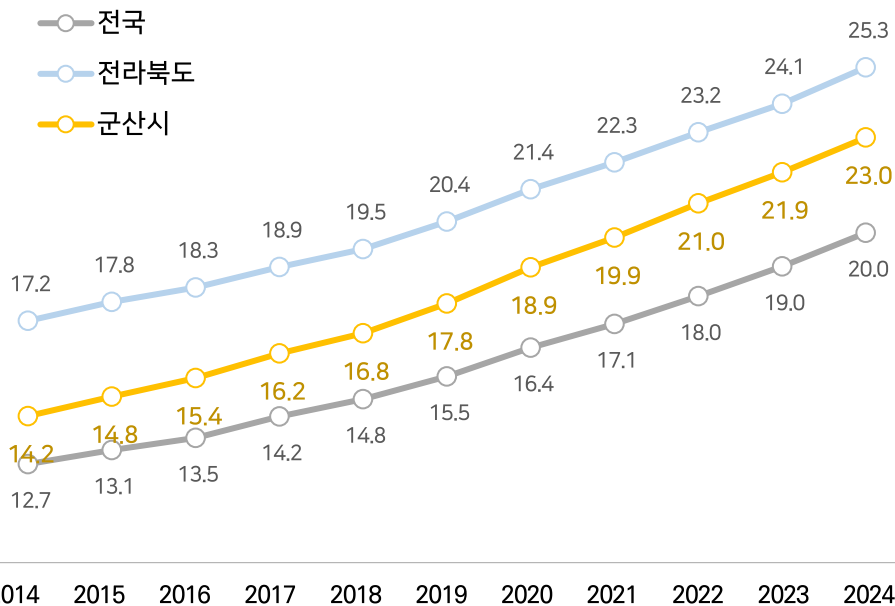
고령화 속도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 군산시의 고령 인구 비중은 전국 평균과 전북도 평균 사이에 위치하는 수준이며, 전국적인 고령화 추세를 따라 지속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단,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전국 및 전북도 대비 더 가파른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10년 기준 고령화 속도 - 군산시 1.62 | 전국 평균 1.58 | 전북도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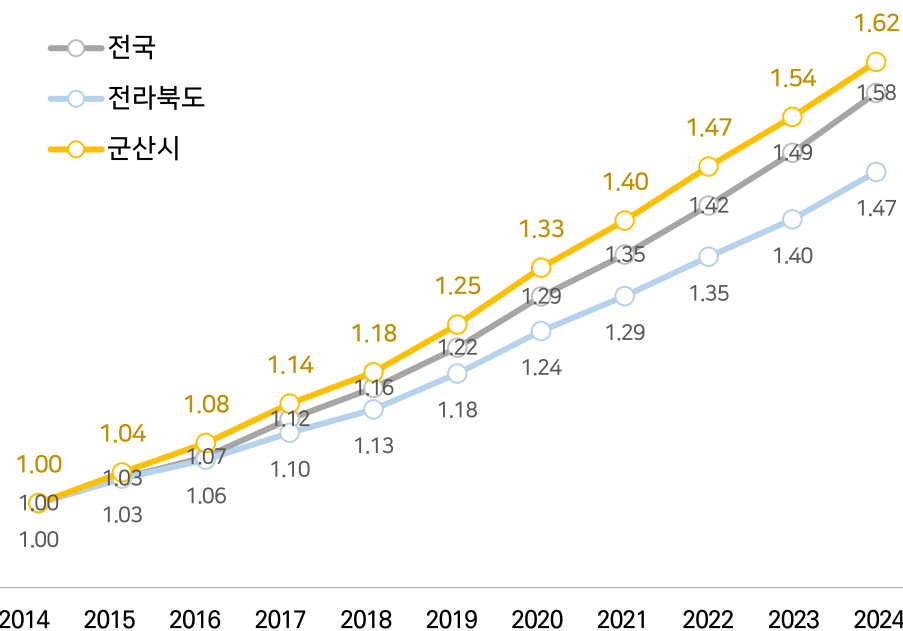
고령인구 비중 변화

(단위 : %)



고령화 진행 속도*

(단위 : 배수)



* 고령화 진행 속도 = 2014년의 고령 비중을 1로 설정했을 때의 수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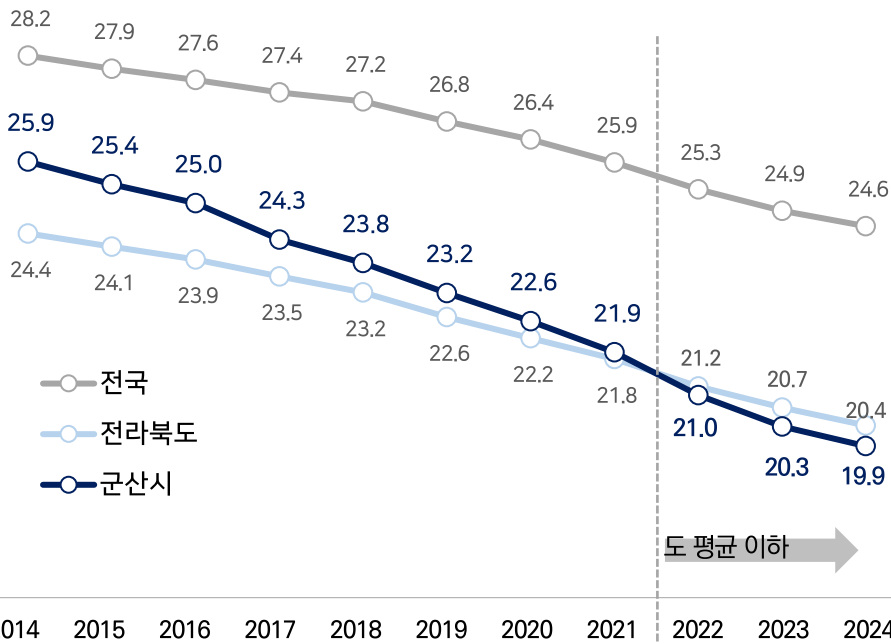
1. 인구 구조 및 변화

청년인구 감소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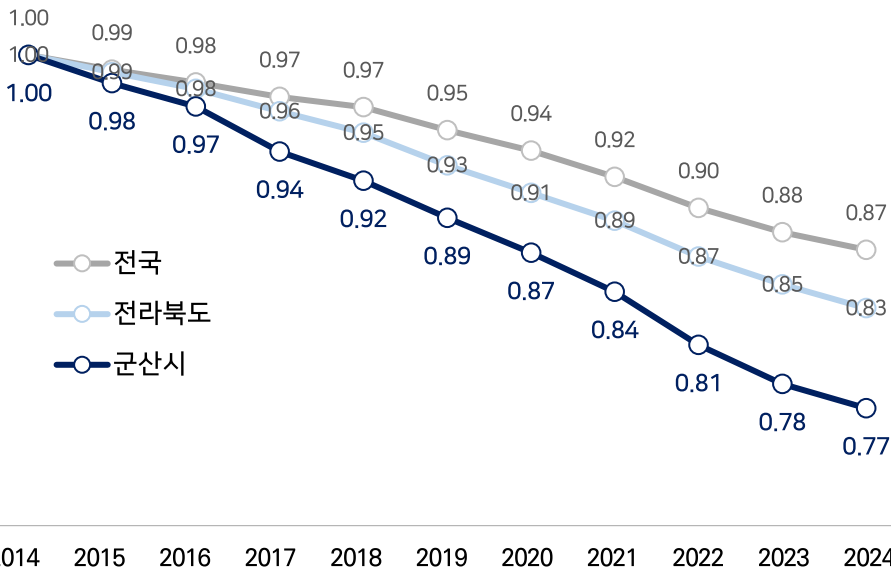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 군산시 청년인구 비중은 과거 전국 평균과 전북도 평균 사이에 위치하는 비중(26% 수준)이었으나 2022년을 기점으로 전북도 평균보다 더 낮아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함
- 그만큼 청년비 감소속도는 전국 및 전북도 대비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10년 간 청년 감소 속도 - 군산시 0.77 | 전국 평균 0.87 | 전북도 0.83)

청년인구 비중 (단위 : %)



청년 비중 감소 속도* (단위 : 배수)



* 청년비중 감소 속도 = 2014년의 청년 비중을 1로 설정했을 때의 수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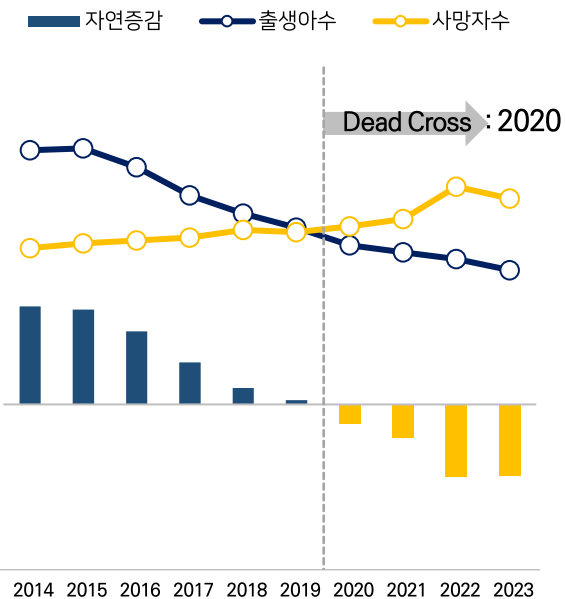
2. 자연적 증감 요인

출생 vs 사망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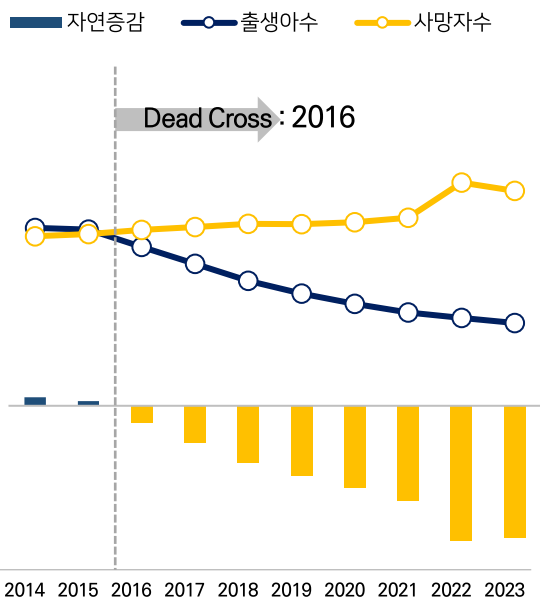
- 군산시의 출생 대비 사망자수에 따른 자연증감 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강화 (데드크로스 시점 - 군산시 2017년 | 전라도 2016년 | 전국 평균 2020년)
(2023년 현재 군산시의 출생아수는 986명, 사망자수는 2,259명으로 자연증감 -1,273명)

전국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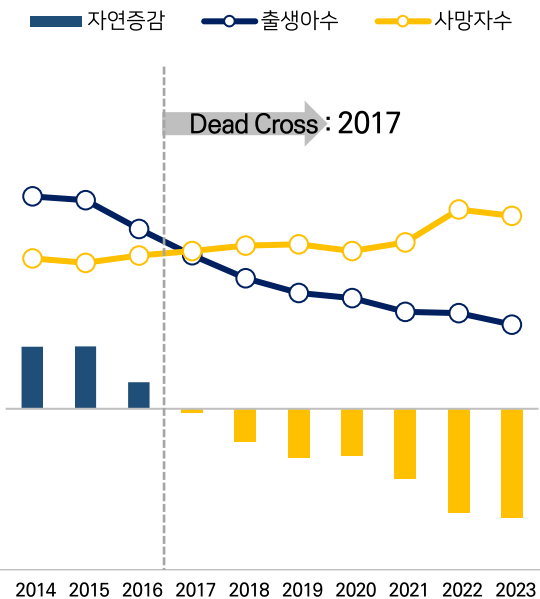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연증감	168	163	125	72	28	8	-33	-57	-124	-122
출생아수	435	438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사망자수	268	276	281	286	299	295	305	318	373	353

전라북도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연증감	668	366	-1364	-2947	-4551	-5554	-6526	-7574	-10820	-10579
출생아수	14231	14087	12698	11348	10001	8971	8165	7475	7032	6622
사망자수	13563	13721	14062	14295	14552	14525	14691	15049	17852	17201

군산시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연증감	725	731	309	-46	-381	-568	-551	-814	-1212	-1273
출생아수	2485	2440	2104	1799	1529	1357	1296	1134	1120	986
사망자수	1760	1709	1795	1845	1910	1925	1847	1948	2332	2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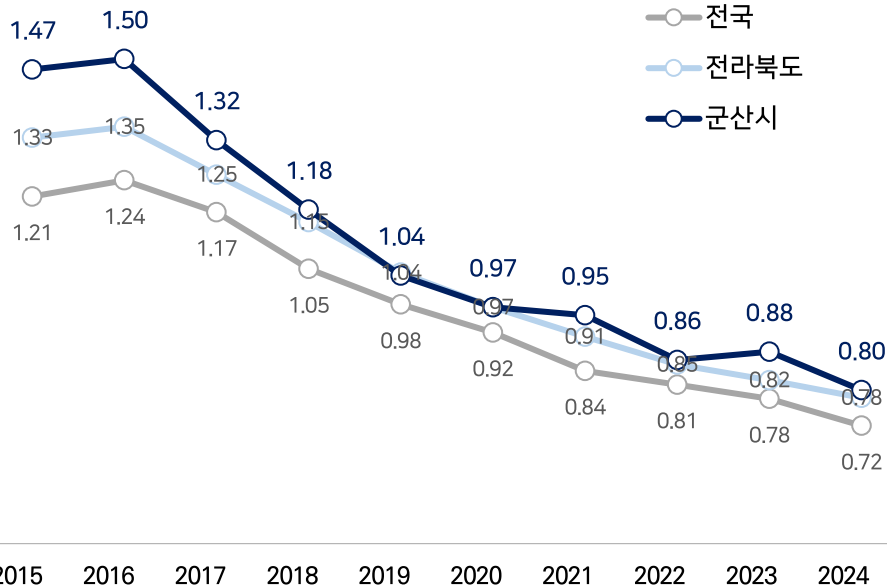
2. 자연적 증감 요인

합계출산율 vs 조출생률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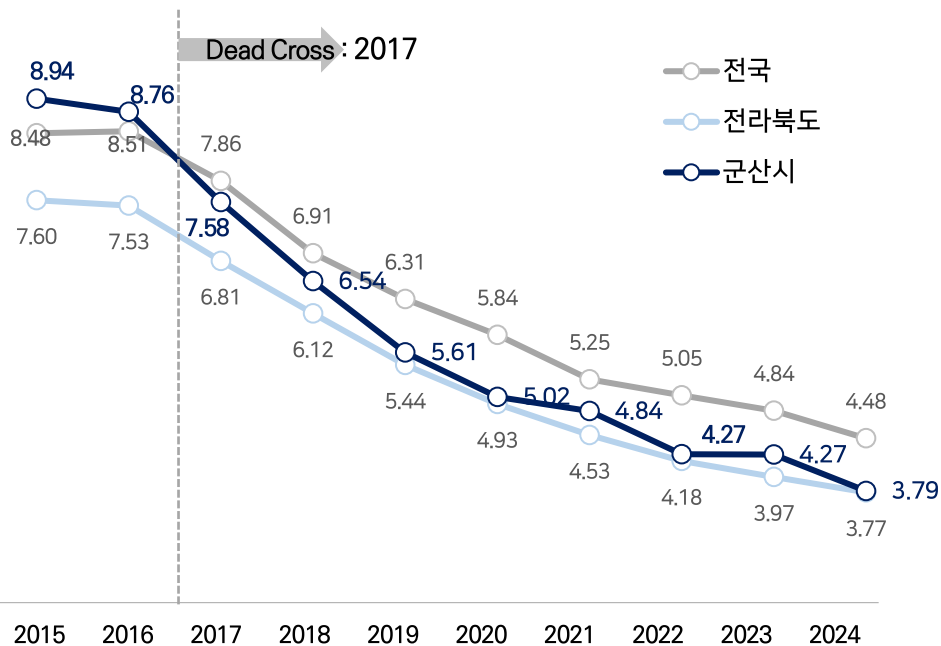
- 군산시의 합계출산율은 10년 전 1.47에서 2024년 현재 0.80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전국적인 하락 경향 추이를 따라가나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 유지
- 반면, 조출생률은 과거 평균 이상의 수준에서 그 하락폭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경향으로 2016년 데드크로스가 발생
- 즉, 군산시 여성의 출산 경향성은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나 가임 여성 자체의 인구가 감소하여 실제 출생아 수는 낮아지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합계 출산율 (단위 : 명)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조출생률 (단위 : 명)



* 조출생률 = 인구 천명당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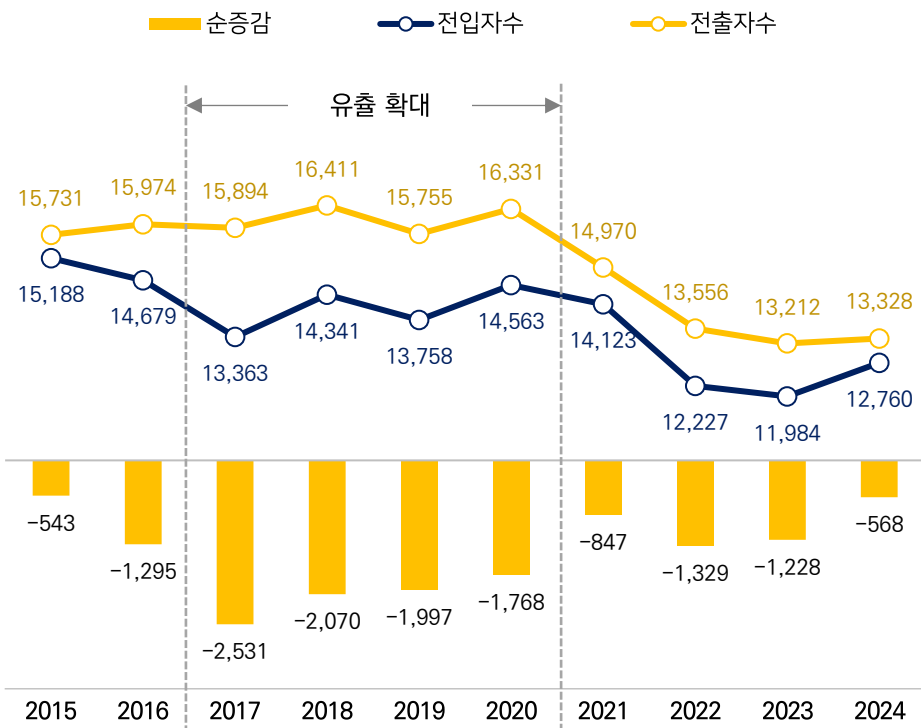
3. 사회적 증감 요인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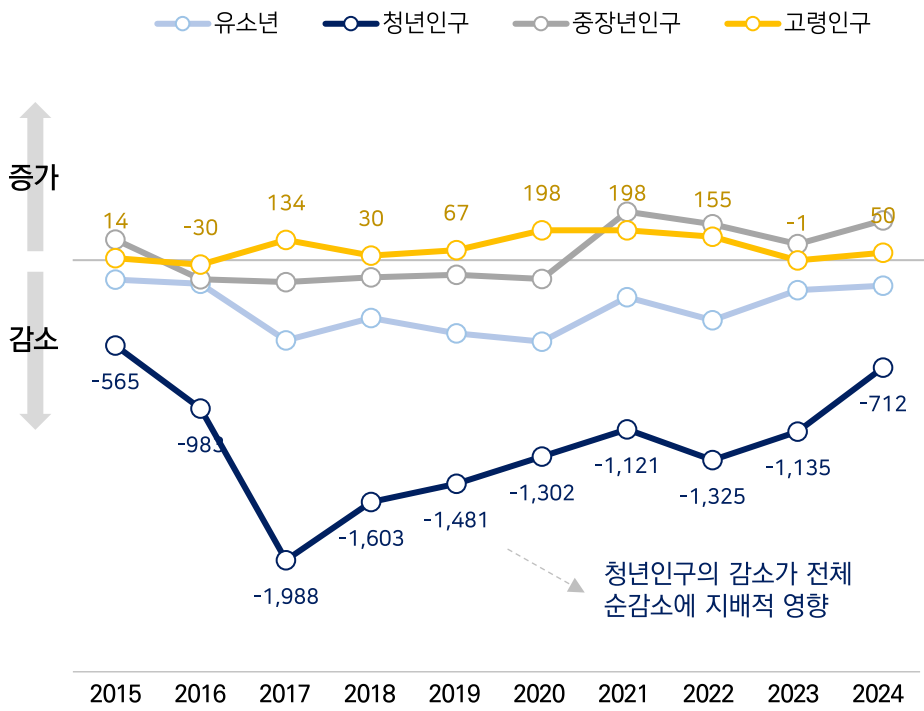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국내인구이동통계-인구관련연간자료)

- 군산시 전입자 수 대비 전출자 수 확대는 2016년부터 증가하여 약 5년간 확대 시기를 거친 후 2024년 현재 568명 감소폭으로 축소
- 연령별로 청년인구의 유출이 2017년 이후 1천명 이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군산시 전체 인구 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군산시 인구이동 - 전입 vs. 전출 변화 (단위 : 명)



연령그룹별 순증감 인구수 (단위 : 명)



* 관내 이동 제외 전북도 내 시군구 및 타 시도간 전입/전출 기준

3. 사회적 증감 요인

전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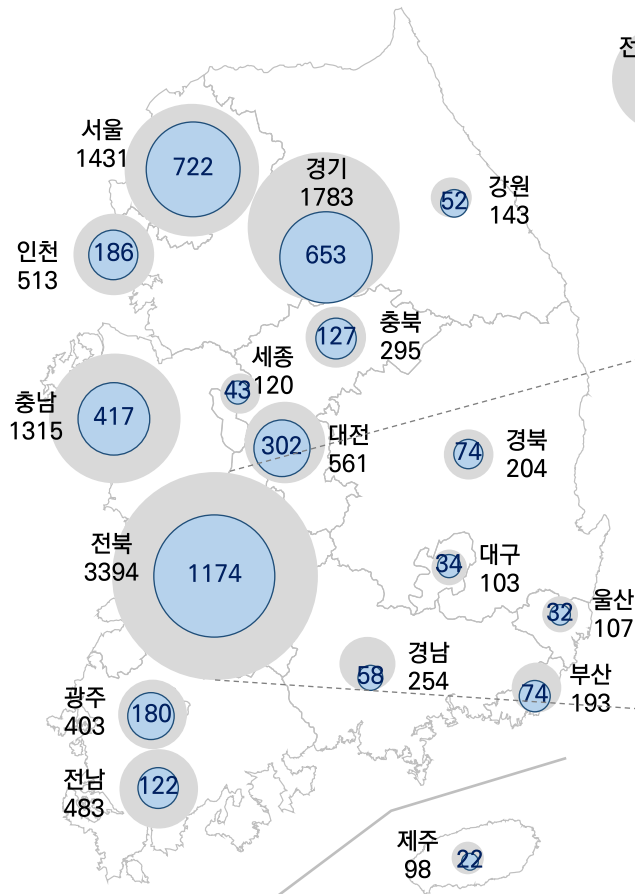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국내인구이동통계-인구관련연간자료)

- 시도 단위의 전출지는 전북 > 경기 > 서울 > 충남 순으로 이동자수가 많으며, 그 중 청년 비율은 대전 > 서울 > 광주 순으로 나타남
- 전북도 내의 전출은 주로 전주 > 익산으로의 유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시도 단위 전출 인구_총 전출 vs. 청년 전출 (단위 : 명)

■ 청년 전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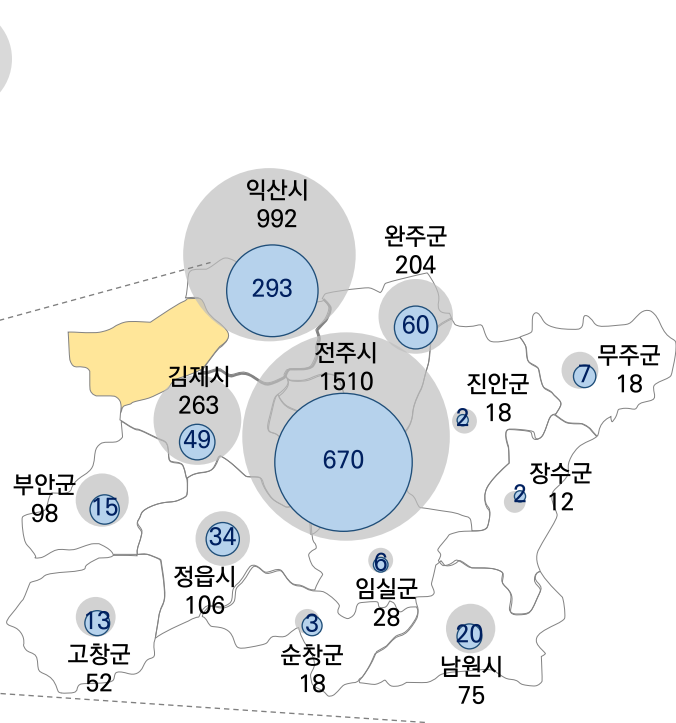
대전	54%
서울	50%
광주	45%
충북	43%
부산	38%
경기도	37%
강원도	36%
경북	36%
인천	36%
세종	36%
전북	35%
대구	33%
충남	32%
울산	30%
전남	25%
경남	23%
제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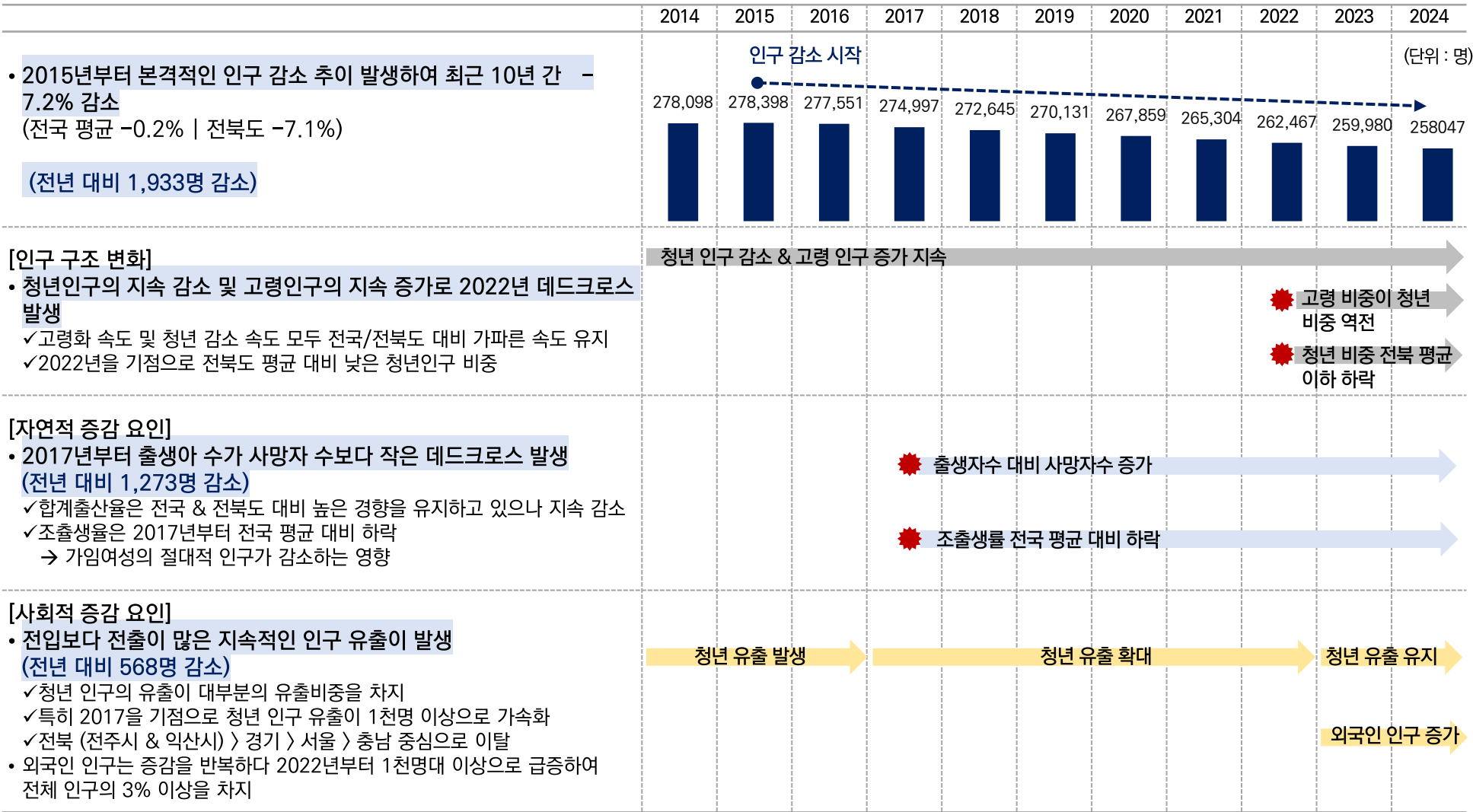
전북도 내 시군구 전출 인구_총 전출 vs. 청년 전출 (단위 : 명)

■ 청년 전출 비중

전주시	44%
무주군	39%
정읍시	32%
익산시	30%
완주군	29%
남원시	27%
고창군	25%
임실군	21%
김제시	19%
순창군	17%
장수군	17%
부안군	15%
진안군	11%



군산시 인구 구조 분석 결과 요약



군산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CHAPTER

| 인구 구조 분석



[PART 1] 군산시 단위

[PART 2] 읍면동 단위

1. 인구 현황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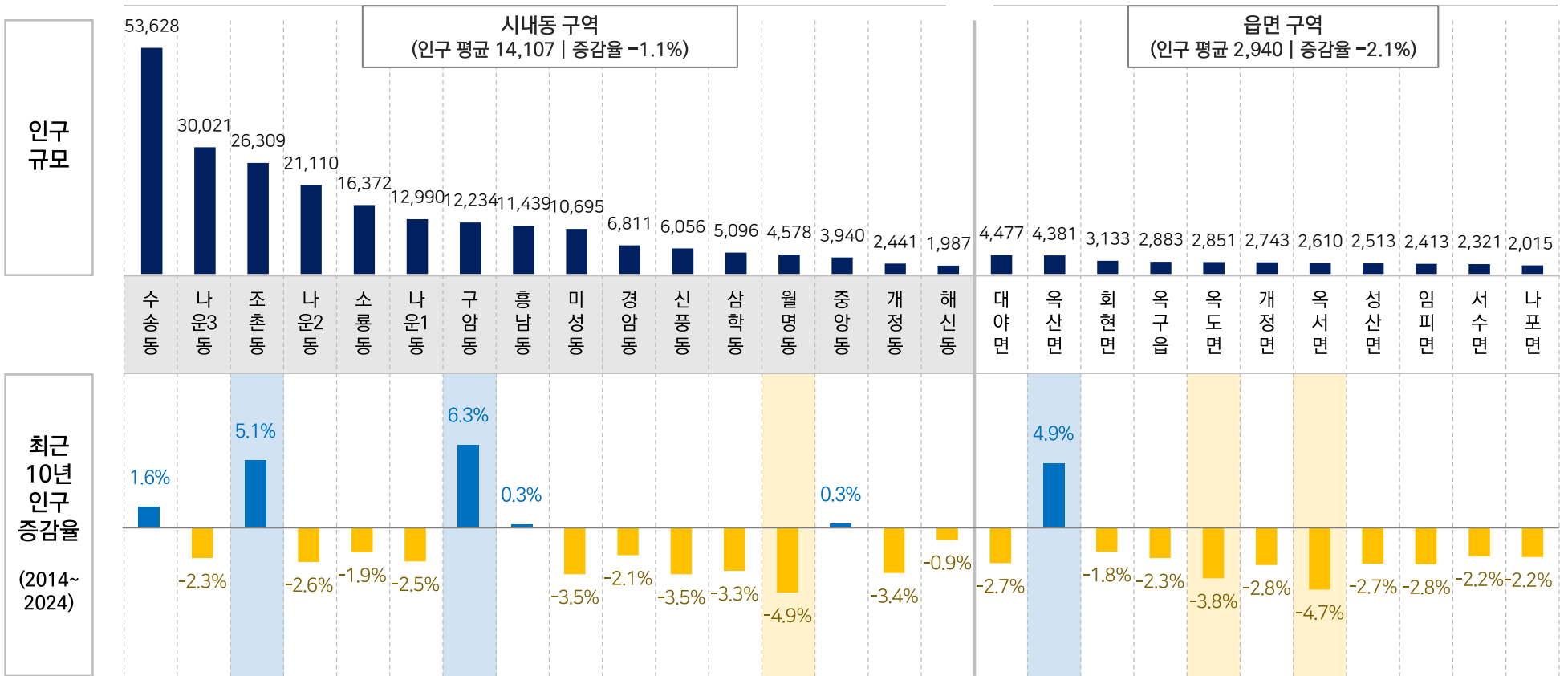
인구 변화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 군산시의 읍면동 기준 인구수는 수송동 > 나운3동 > 조촌동 순이며 시내동 구역이 읍면 구역 대비 약 4배 이상 높은 수준
- 최근 10년간 인구증가 지역은 구암동 > 조촌동 > 옥산면 순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 감소하였음 (시내동 지역 증감율 평균 -1.1% | 읍면동 지역 증감율 -2.1%)

읍면동별 인구 규모 및 증감율

(단위 : 명, 2024)



1. 인구 현황 및 구조

인구 구조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 고령 대비 청년 비중이 높은 지역은 4개동에 불과 (수송동 > 조촌동 > 구암동 > 나운3동)
- 읍면 구역은 모두 고령자 비중이 높으며 청년 대비 고령화 비중 또한 약 4배 수준으로 시내동 구역 대비 격차가 큼 (나포면 > 서수면 > 옥구읍 > 대야면 > 성산면 > 임피면)
- 읍면 구역 중 옥산면은 고령 비중이 크게 낮은 지역적 특징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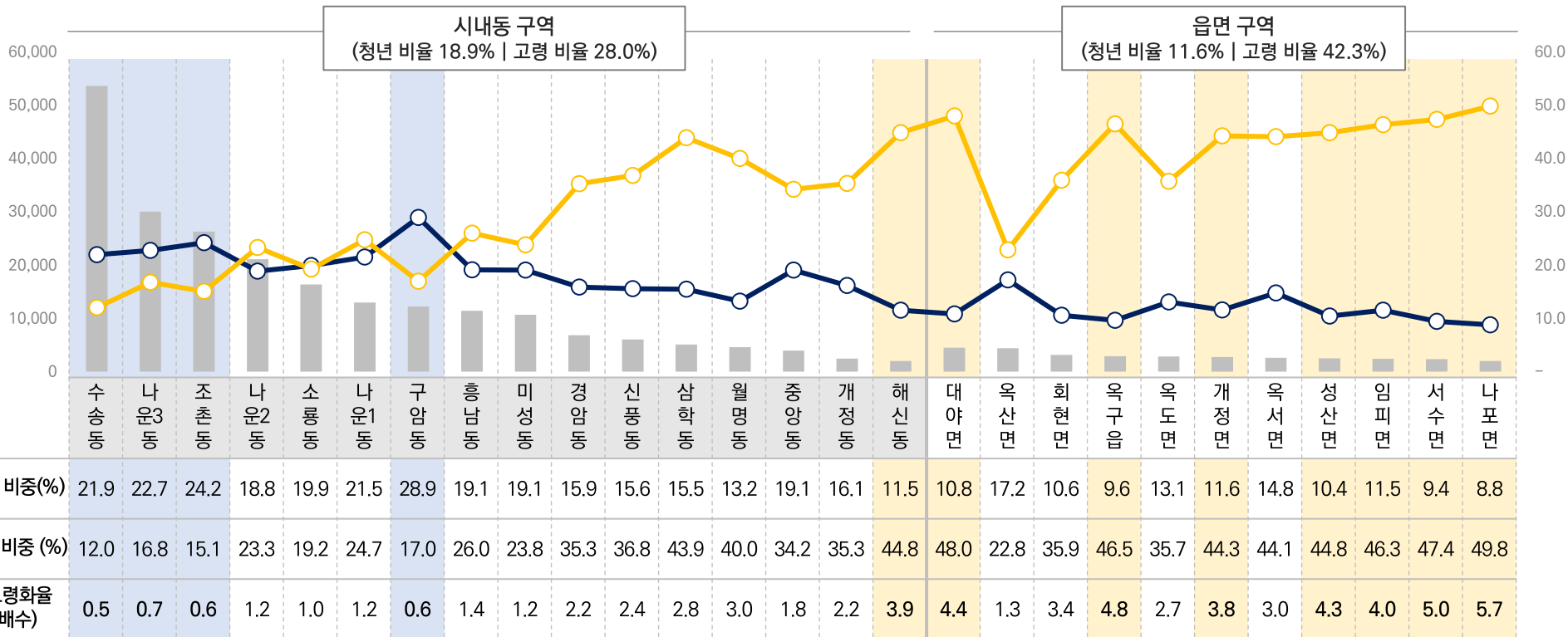
읍면동별 청년 인구 vs. 고령 인구 비중

(단위 : 명, 2024)

인구 청년 비율 고령 비율

청년 비율 우위

고령 비율 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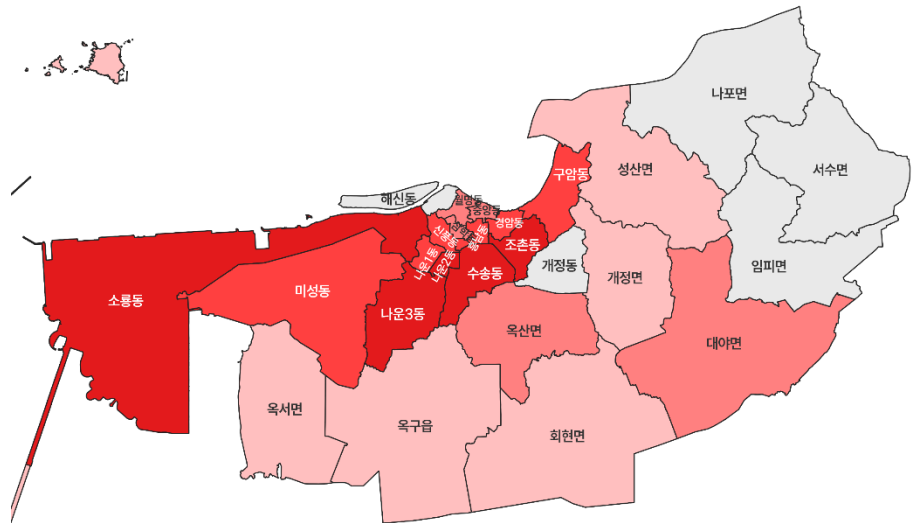
* 고령화율 = 고령 비중 / 청년 비중

1. 인구 현황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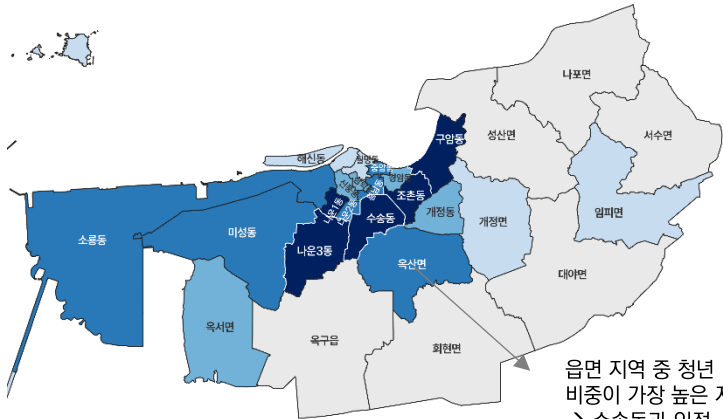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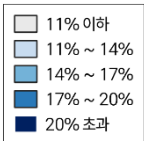
인구 구조 - 히트맵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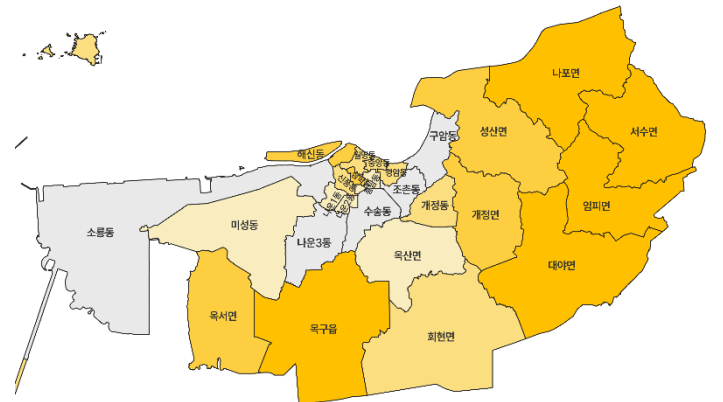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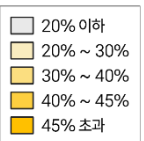
읍면동별 인구 규모



인구 - 청년 비중 (%)



인구 - 고령 비중 (%)



1. 인구 현황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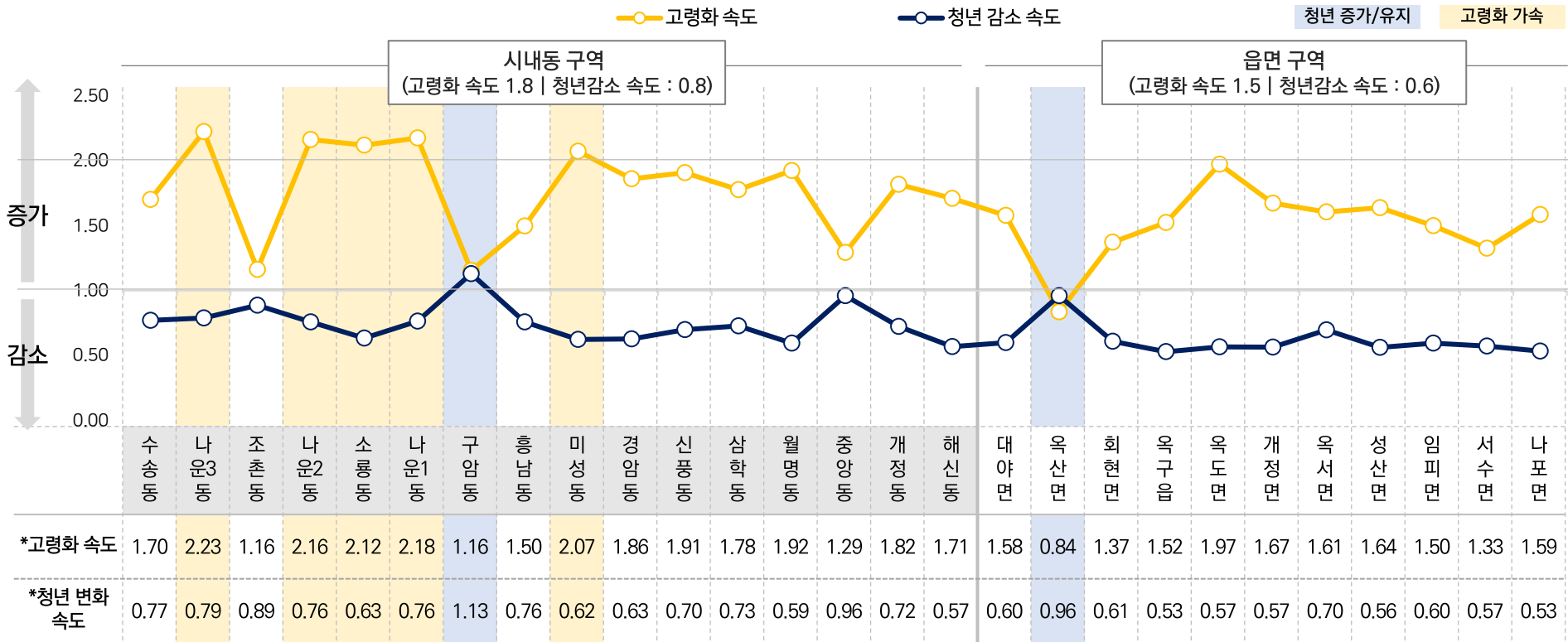
고령화 속도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 청년 인구가 증가/유지되는 지역은 구암동과 옥산면이 유일
- 고령화 속도는 시내동 구역이 평균 1.8로 읍면 구역(1.5) 대비 더 높은 상황으로, 읍면 구역은 이미 고령화가 완성 단계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고령화 속도 2 이상 동 지역 - 나운3동 > 나운2동 > 나운1동 > 소룡동)
- 반면, 청년 감소 속도는 읍면 구역이 0.6으로 시내동 구역(0.8) 대비 더 가파른 감소 속도를 보이고 있음

읍면동별 고령화 vs. 청년 감소 속도 (최근 10년간)

(단위 : 지수, 2014~2024)



*고령화 속도(1 이상이면 증가) = 2024년 고령비중 / 2014년 고령비중

*청년 변화 속도(1 이상이면 증가) = 2024년 청년비중 / 2014년 청년비중

1. 인구 현황 및 구조

읍면동 고령화 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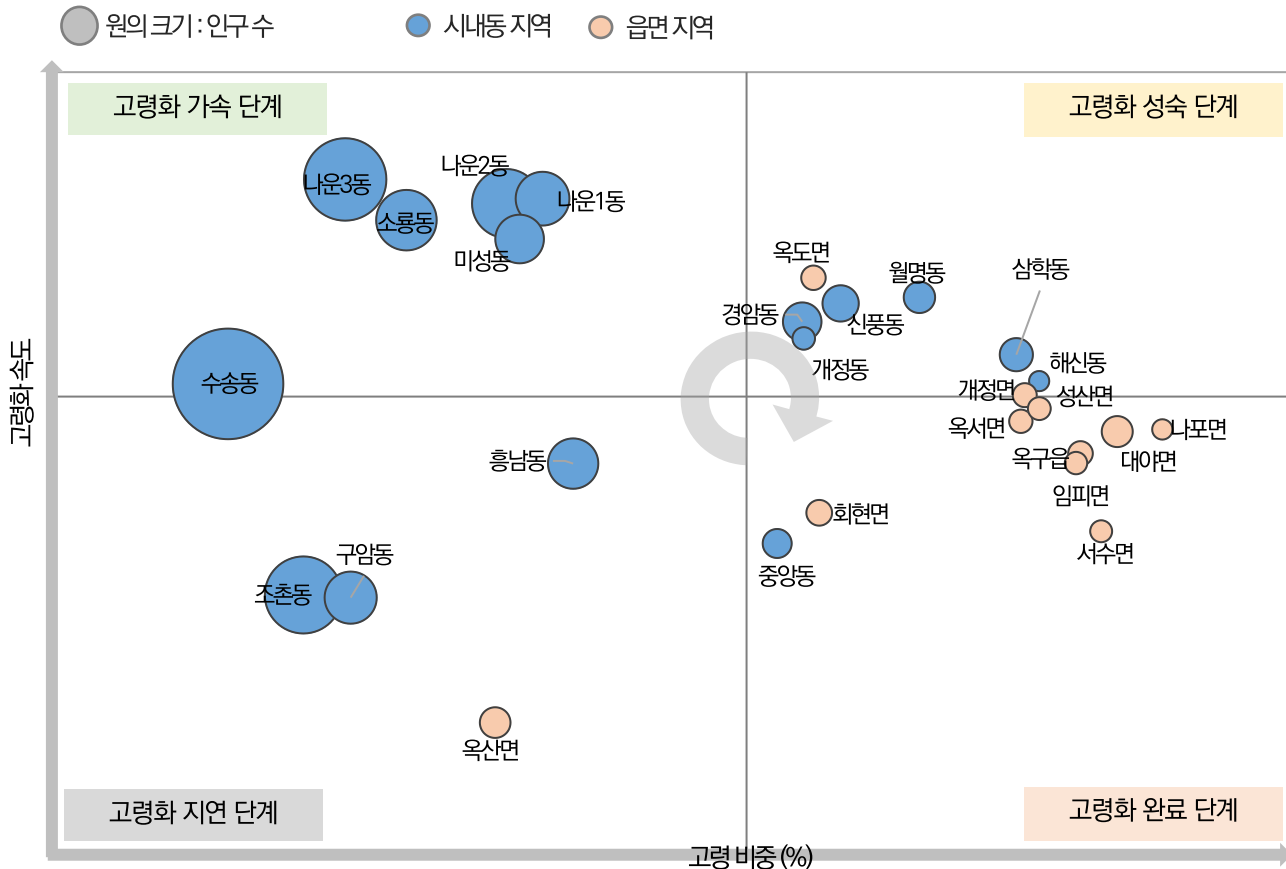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 핵심 시내동 지역인 나운동, 소룡동, 미성동 등이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소규모 시내동 지역은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었고 여전히 그 속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 소규모의 주요 읍면 구역은 이미 고령화가 완성된 단계

* 고령화 사이클 : 고령화 지연 단계에서 시작하여, 고령화 가속 시작 후 고령화 성숙 단계까지 고령화 비중이 증가하며, 이후 고령화 완료 단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감소하는 과정

*고령화 사이클 Matrix

(단위 : %, 2024)



[고령화 완료 단계]

- 서주면, 임피면, 대야면, 나포면, 옥구읍, 성산면, 옥서면, 개정면, 회현면, 중양동
- 주요 읍면 지역이 포함

[고령화 성숙 단계]

- 해신동, 삼학동, 월명동, 신풍동, 개정동, 경암동, 옥도면

[고령화 가속 단계]

-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수송동
- 핵심 시내동 지역이 포함

[고령화 지연 단계]

- 흥남동, 구암동, 조촌동, 옥산면

2. 자연적 증감 요인

출생 vs 사망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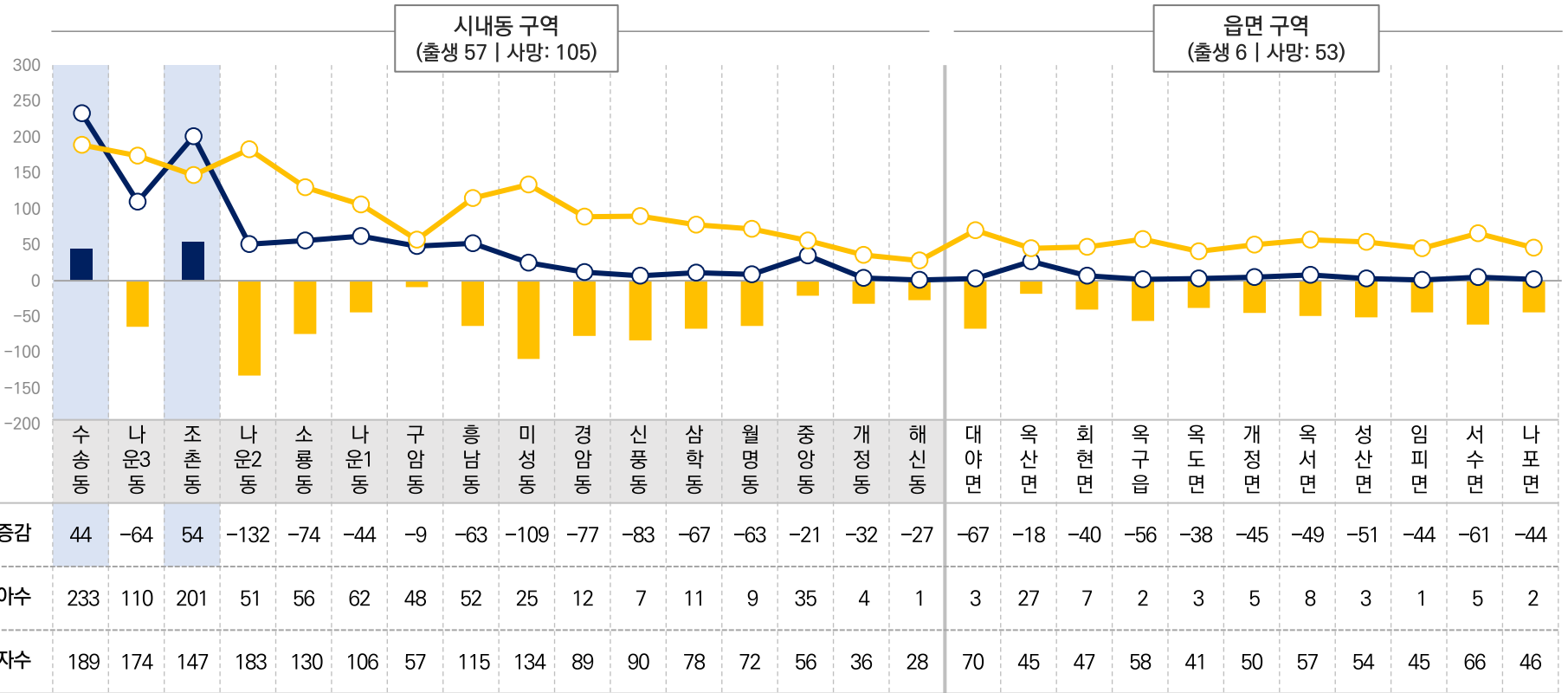
-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자연증가 지역은 조촌동 > 수송동이 유일하며, 그 외 모든 지역이 자연감소 발생 (자연감소 상위 지역 : 나운2동 > 미성동 > 신평동 > 경암동 > 소룡동 > 대야면 > 나운3동)
- 감소 규모는 시내동 vs. 읍면 구역 차이 크지 않으나 읍면 구역은 출생자 수가 평균 6명에 불과한 상황

인구 자연증감 - 출생아 수 vs. 사망자 수

(단위 : 인구수, 2023년)

■ 자연증감 ● 출생아수 ○ 사망자수

자연 증가 읍면동



3. 사회적 증감 요인

인구이동 현황

(출처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국내인구이동통계-인구관련연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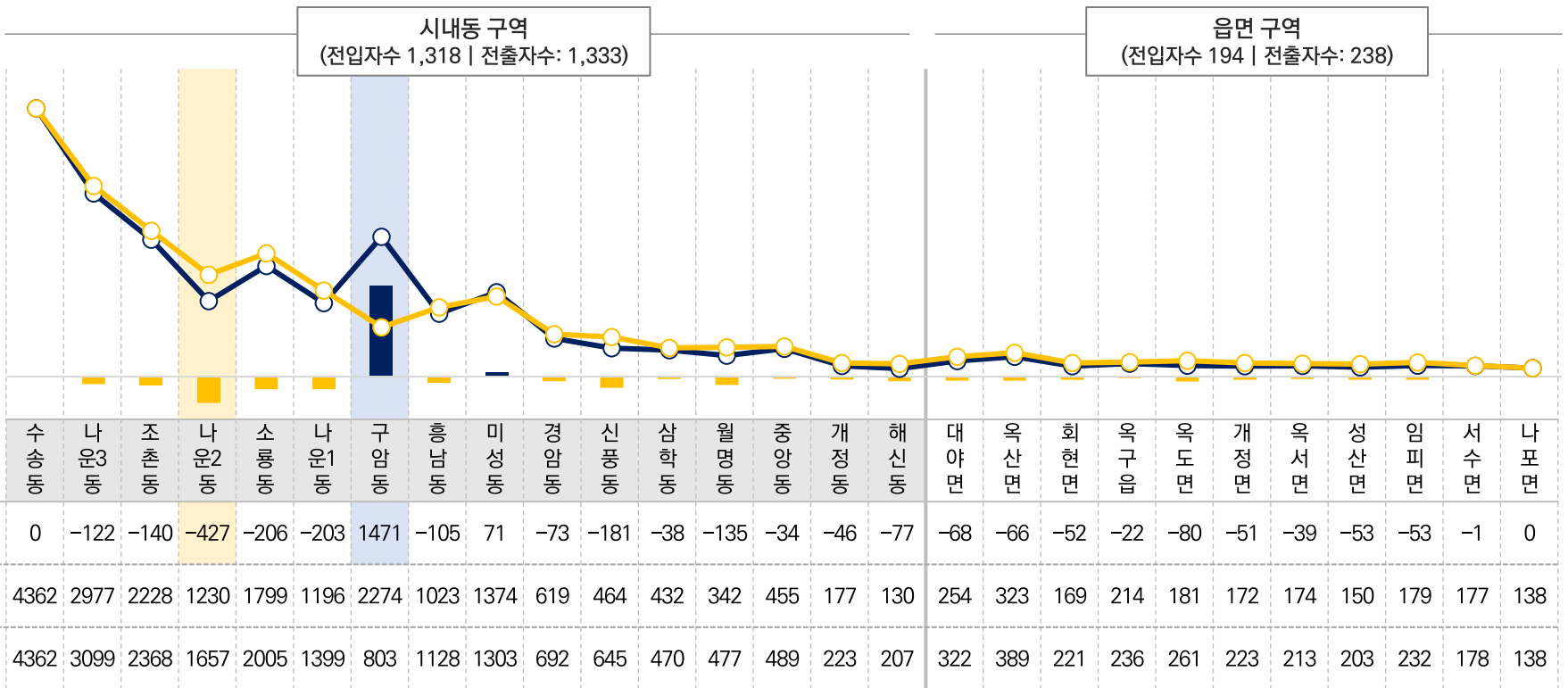
- 인구규모가 클수록 전입/전출 이동도 많은 경향을 띄고 있으며,
- 전년 기준 전출 대비 전입이 많은 지역은 구암동이 유일

인구 사회 증감 - 인구이동 현황

(단위 : 인구수, 2024년)

■ 순증감 ● 전입자수 ○ 전출자수

사회적 증가 읍면동



* 동일 읍면동 내 이동 제외 타 읍면동, 시군구 및 시도간 전입/전출 기준

3. 사회적 증감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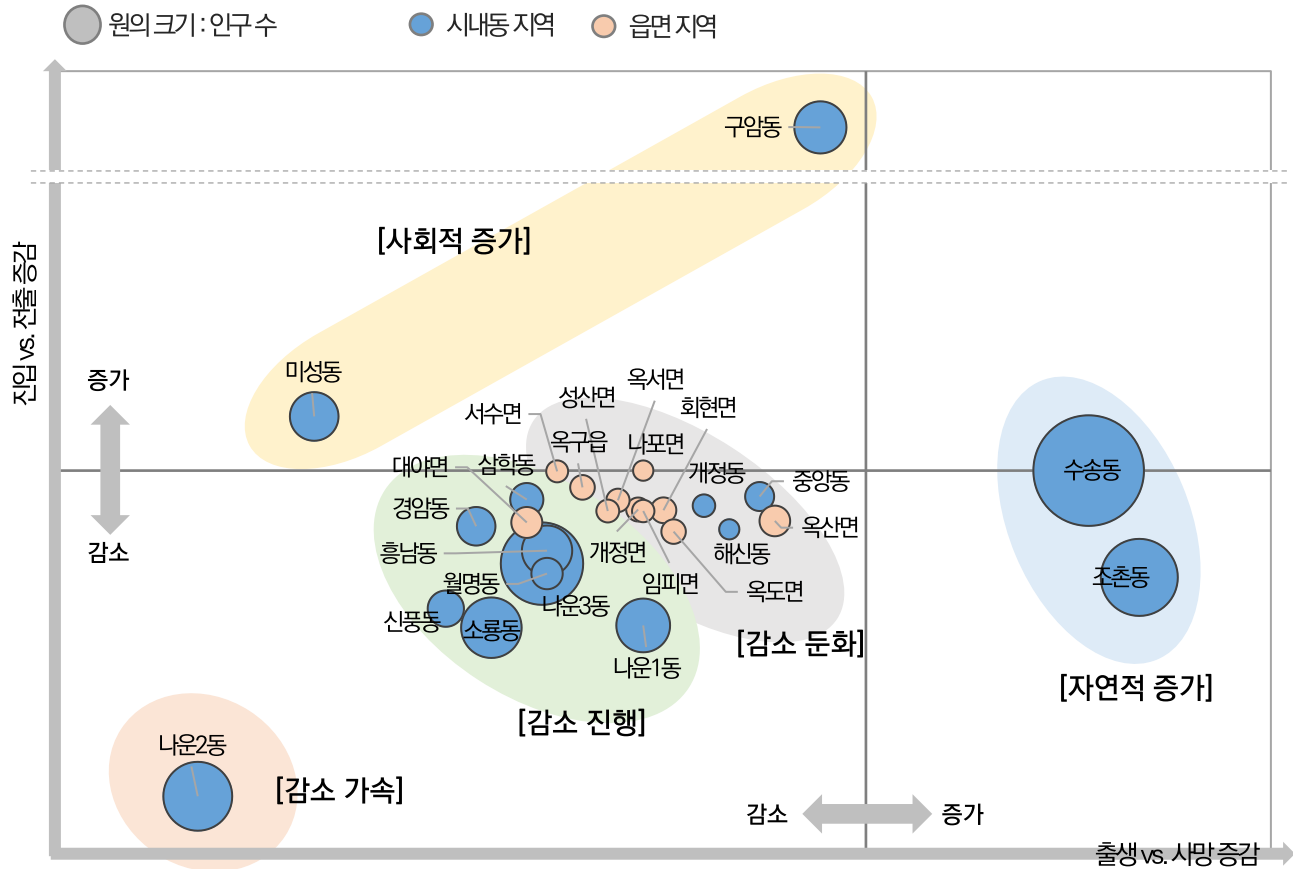
인구 증감 요인 종합

(출처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국내인구이동통계-인구관련연간자료)

- 자연적 & 사회적 양 측면 모두에서 증가 양상을 보이는 지역은 수송동과 구암동
- 대부분의 지역에서 양 측면 모두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 소규모 읍면 지역은 정체에 가까운 반면 규모가 있는 시내동 지역의 감소폭이 더욱 크며 나운2동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음

자연적 vs. 사회적 증감 Matrix

(단위 : %, 출생사망증감-2023/인구이동증감-2024)



[자연적 증가]

- 수송동, 조촌동

[사회적 증가]

- 구암동, 미성동

[감소 둔화]

- 중앙동, 해신동, 개정동
- 옥산면, 옥도면, 회현면, 임피면, 나포면, 옥서면, 옥구읍, 성산면, 개정면, 서수면
- 주요 읍면 지역 대부분 포함

[감소 진행]

- 나운1동, 나운3동, 월명동, 심학동, 경암동, 소룡동, 신평동, 대야면

[감소 가속]

- 나운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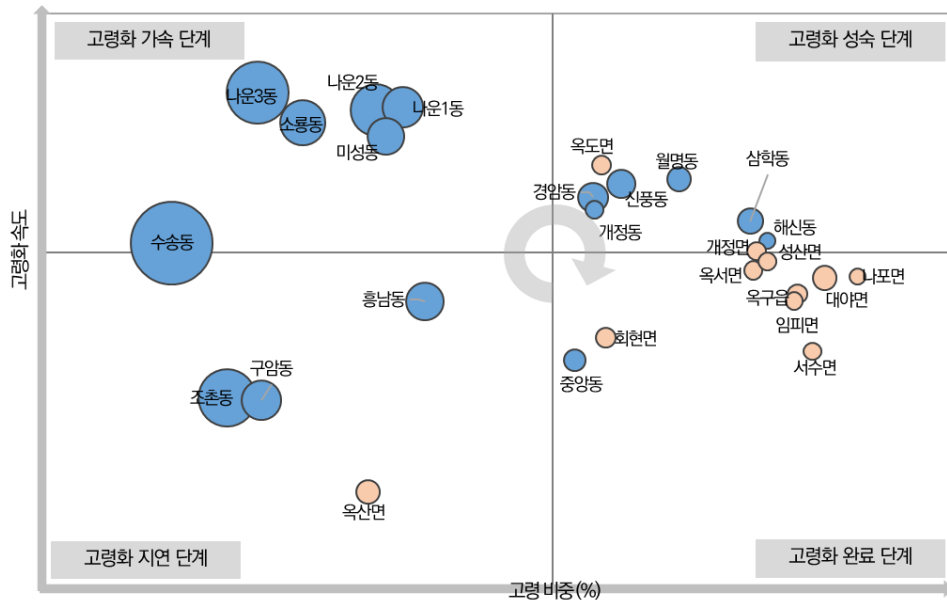
읍면동 인구 구조 분석 결과 요약

(출처 :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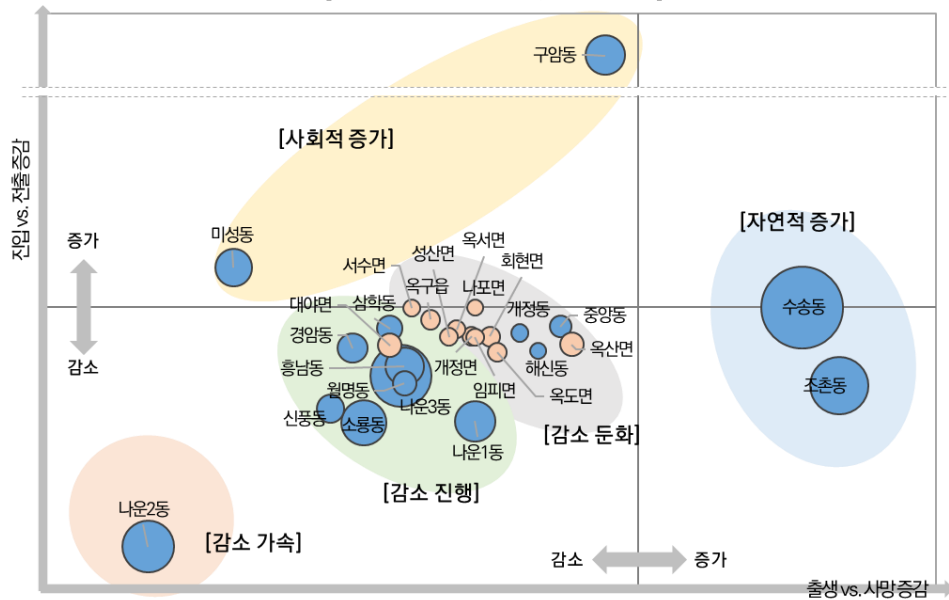
주요 시내동 지역 특징	
수송동	고령 비중이 가장 낮아 자연증가 높으나 고령화 속도 상승
조촌동	고령 비중도 낮고 고령화 속도도 낮아 자연적 요인이 안정적이며 자연 증가가 가장 높음
구암동	고령화 지연 단계에 있어 자연 감소가 적은 반면, 진입 인구가 많아 인구 증가가 발생
미성동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자연 감소 크나 진입 인구는 높은 지역
나운1~3동/소룡동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자연 요인 & 사회 요인 모두 감소하고 있어 인구 지속 감소

주요 읍면 지역 특징	
옥산면	읍면 지역 중 유일하게 고령화 지연 단계에 있으며 자연 요인 & 사회 요인 모두 가장 적은 폭의 감소
옥도면	상대적으로 고령 비중이 낮아 인구 감소폭이 낮은 편이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회현면	상대적으로 고령 비중이 낮아 인구 감소폭이 낮은 편이며, 고령화도 둔화된 상태
개정면/성산면/옥서면	고령화 최종 완료 직전 단계로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지역
나포면/대야면/옥구읍/임피면/서수면	고령화 최종 완료 단계로 인구 감소가 빠른 지역

[고령화 사이클 Matrix]



[자연적 vs. 사회적 증감 Matrix]



군산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CHAPTER

II 생활 인구 분석



[PART 1] 군산시 단위

[PART 2] 읍면동 단위

1. 분석 개요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개요

- 본 사업 간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은 2가지 개념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분석을 실시
- ‘체류인구’ 분석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체류인구 정의에 따른 개념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
- 체류인구 분석은 인구 규모에 대한 분석에 한정되므로, 보다 면밀한 인구 이동 및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실 생활인구 분석을 병행함

본 사업 간 추출 데이터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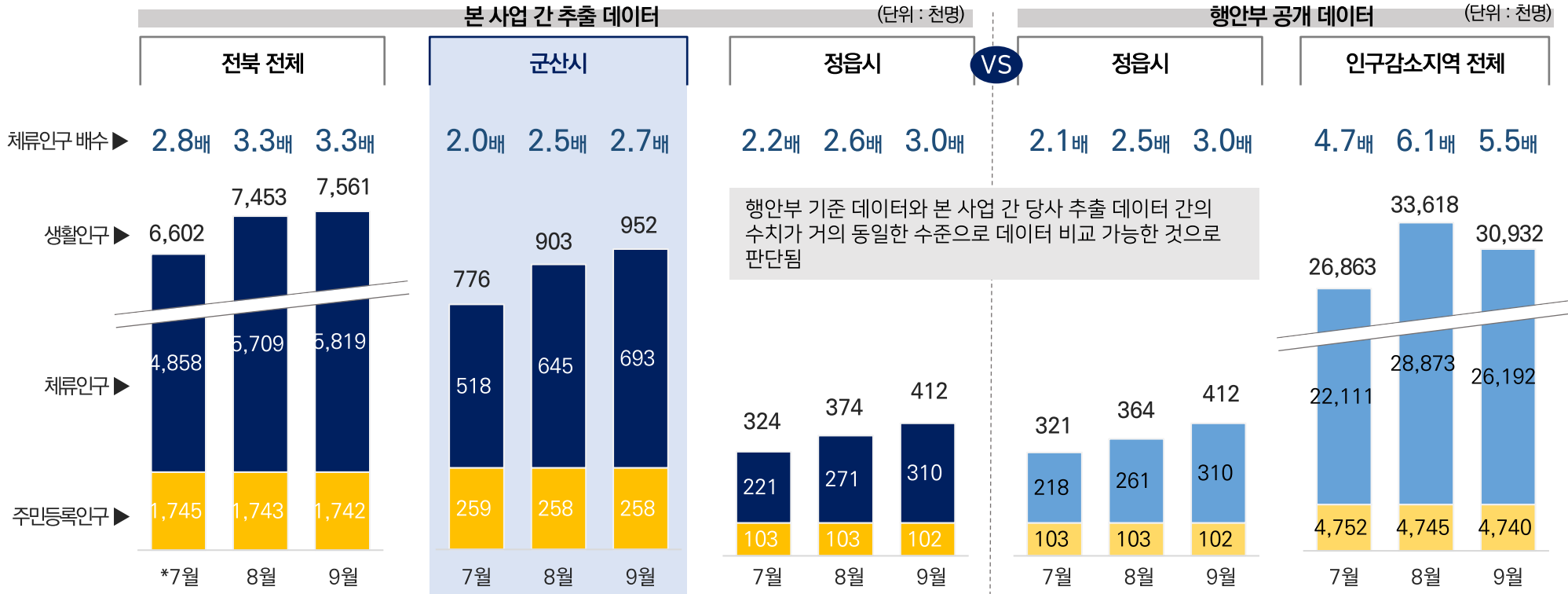
	행안부 기준 체류인구 분석	실 생활인구 분석							
개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한 기준에 따라 집계한 연구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							
분석 목적	행안부 기준에 근거한 ‘체류 인구’ 데이터의 공시자료 및 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군산시의 현재 수준을 파악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업무, 관광, 교육 등 일시적으로 특정지역을 찾아 행정 수요를 유발하는 인구							
데이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인구와 KT통신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안전부 법제화 생활인구 기준에 따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모두 합한 인구 추출 • 행안부 데이터는 민/관 데이터의 가명 결합을 통해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인구를 구분하나 본 사업에서는 해당 접근이 불가하므로 100% 일치하는 데이터 추출은 불가 • 생활인구 데이터 비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본 사업 데이터</th> <th>행안부 데이터</th> </tr> <tr> <td>주민등록인구</td> <td>주민등록인구</td> </tr> <tr> <td rowspan="2">체류인구</td> <td>외국인 등록인구</td> </tr> <tr> <td>체류인구</td> </tr> </table>	본 사업 데이터	행안부 데이터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 등록인구	체류인구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존재하는 인구 수를 의미하는 데이터이므로 한 사람은 매 시점에 최대 1번만 고유하게 집계 • 매 시 정각의 지역별 인구 수 총합이므로, 시각(時刻) 단위의 데이터 • 시각 단위 데이터를 비교 목적으로 월 단위 및 일 단위의 평균 인구 수 및 고유(Unique) 인구 수로 변환하여 수치화
본 사업 데이터	행안부 데이터								
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 등록인구								
	체류인구								

2. 행안부 기준 체류인구 분석

생활인구 비교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체류인구 데이터 추출)

- 본 사업 간 추출된 정읍시의 체류인구 데이터와 행안부 공개 데이터 간의 비교 시 유사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
- 해당 기간 군산시의 체류인구 배수는 2배~2.7배 사이이며, 전북 전체 대비 다소 낮은 수준
-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체류인구 배수가 5배를 상회하는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군산시는 거주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중이 낮음
- 주민등록인구 = 행안부 기준 주민등록인구 동일
- 체류인구 = 행안부 기준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 데이터 시점 : 행안부 제공 생활인구 데이터 최근 자료(2024년 7월~9월)를 통해 비교함
- 전북 전체 데이터 : 본 사업 간 추출한 전북 내 14개 모든 시군구 통합 데이터
- 정읍시 데이터 :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전북 내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중 군산시와 규모가 가장 유사한 시로 비교 분석 목적으로 추출한 데이터



2. 행안부 기준 체류인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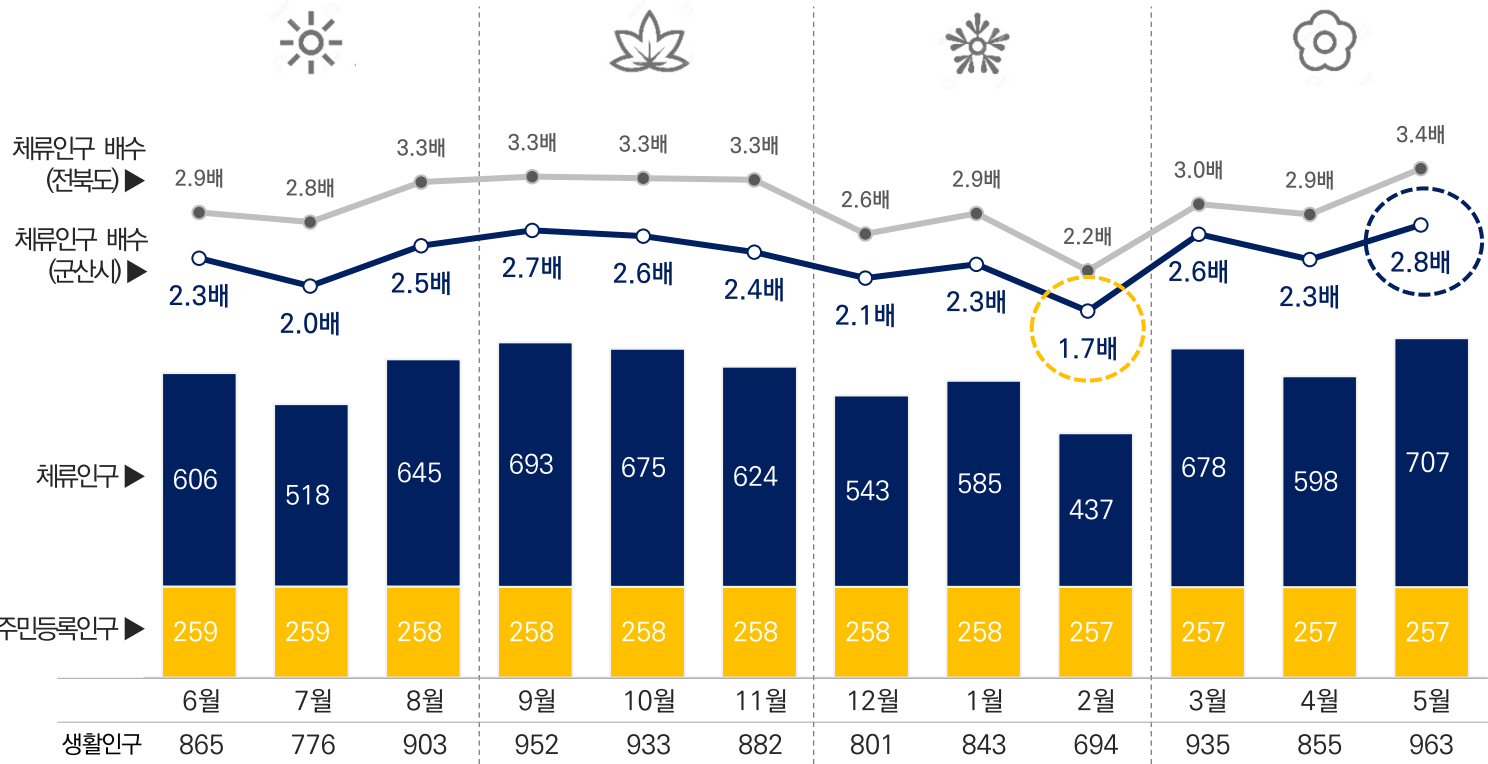
생활인구 연간 추이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체류인구 데이터 추출)

- 최근 1년 기준 군산시 체류인구 배수는 5월이 가장 높은 2.8배, 2월이 가장 낮은 1.7배로 주로 봄 & 가을의 활성도가 높아 계절적 요인에 따른 변화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연간 생활인구 변화의 폭을 수치화한 변동 계수 산출 결과 군산시는 전북 전체 대비 변화폭이 큰 경향을 보이며, 유사 시도와 비교 시 정읍시보다는 낮고 익산시보다는 높은 수준임

군산시 생활인구 연간 추이 (최근 1년 간)

(단위 : 천명)



[연간 생활인구 변동 계수]

월간 단위 인구가동의 활력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인구 변화의 폭을 나타냄

$$\text{생활인구 변동계수} = \frac{\text{연간 월 생활인구 표준편차}}{\text{연간 월 생활인구 평균}}$$

- 군산시 : **0.126**
- 전북 전체 평균 : 0.116
- 정읍시 : 0.288
- 익산시 : 0.105

2. 행안부 기준 체류인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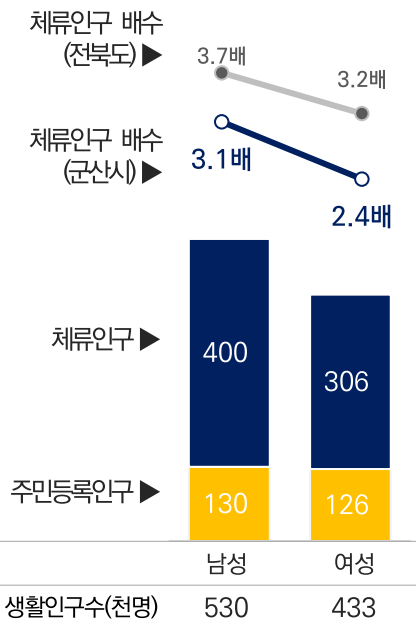
생활인구 성/연령별 특성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체류인구 데이터 추출)

- 체류인구의 성별로는 남성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경향을 보임
- 연령별로는 20대 중반부터 30대까지의 청년인구의 체류인구 배수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중장년 인구에서 3배 이상의 체류인구 활성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전북도 전체 평균과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나 특히 청년 & 중장년 인구의 체류인구 배수 쪽에서 다소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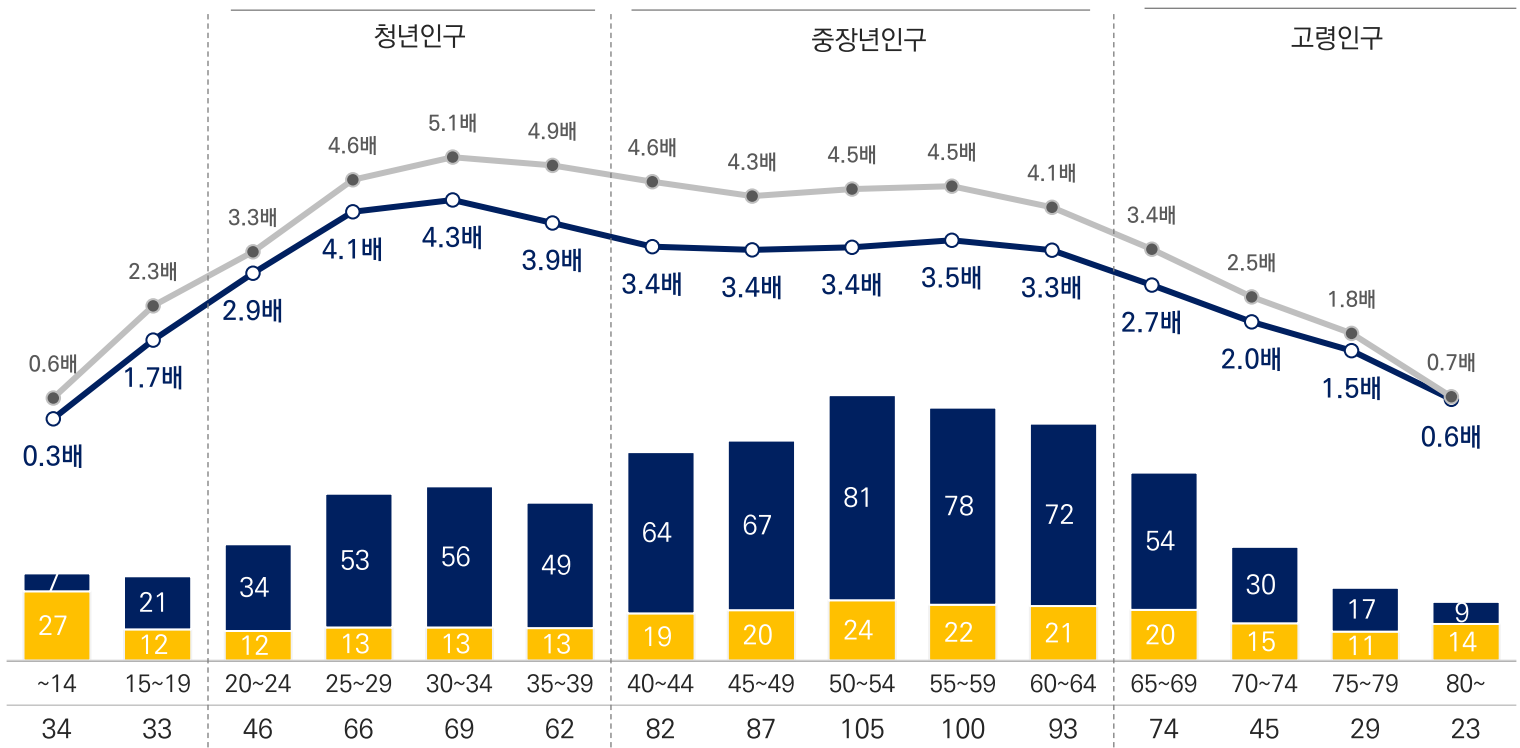
군산시 성별 생활인구

(단위 : 천명, 2025년 5월)



군산시 연령별 생활인구

(단위 : 천명, 2025년 5월)



2. 행안부 기준 체류인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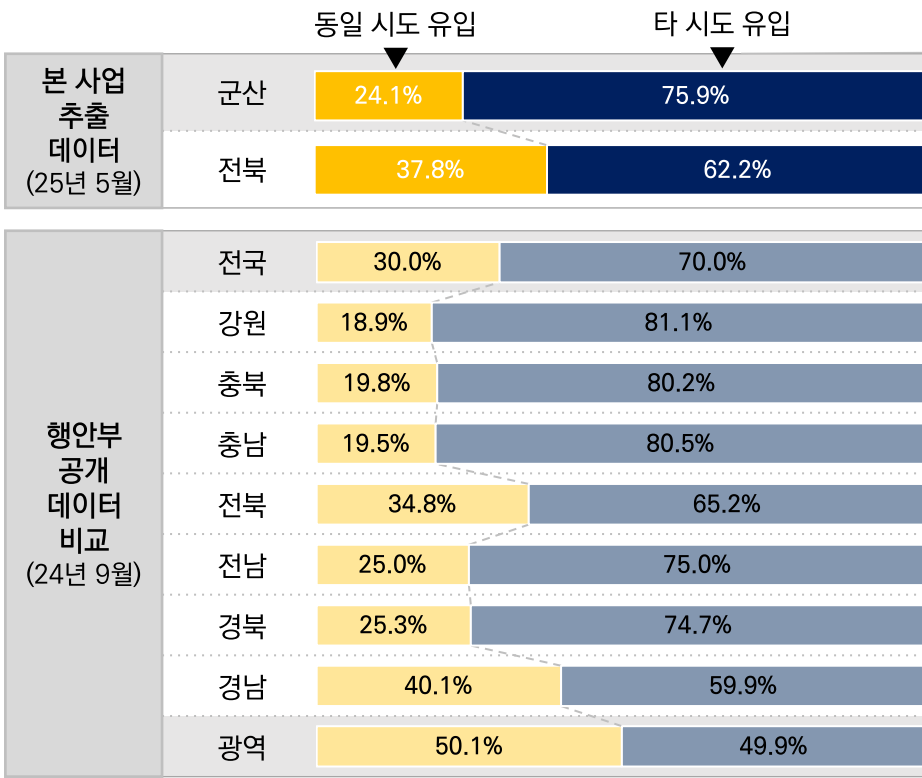
체류인구 유입 지역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체류인구 데이터 추출)

- 군산시 체류인구가 유입되는 주요 지역으로 전북 전주>전북 익산 순이나 타 시도 유입 비중이 76% 수준으로 보다 높음
- 행안부 데이터 기준, 전북도는 체류인구 배수도 낮고 타 시도 유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띄고 있는 바, 전국 각지에서의 방문보다는 전북도 내에서의 업무 및 가까운 관광 목적이 보다 많을 것으로 유추되는 반면,
- 군산시는 보다 전국 권역에서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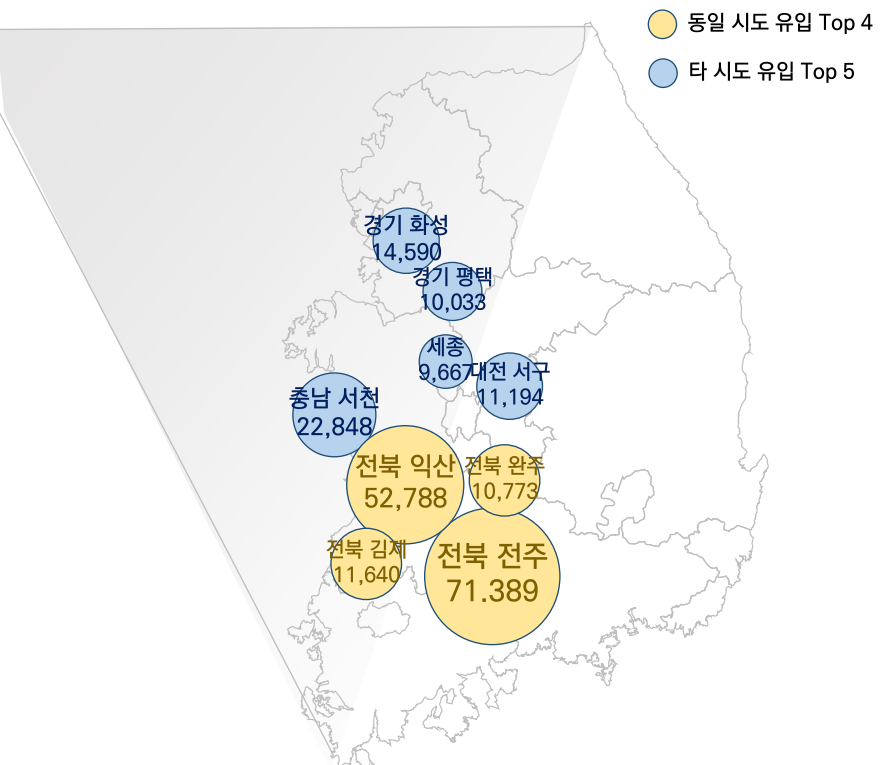
체류인구 유입 지역

(단위 : %)



군산시 유입 상위 지역

(단위 : 명)



3. 실 생활인구 분석

실 생활인구 개요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생활인구 데이터 추출)

- 군산시의 특정 시점 평균적인 실 생활인구 규모는 약 30만명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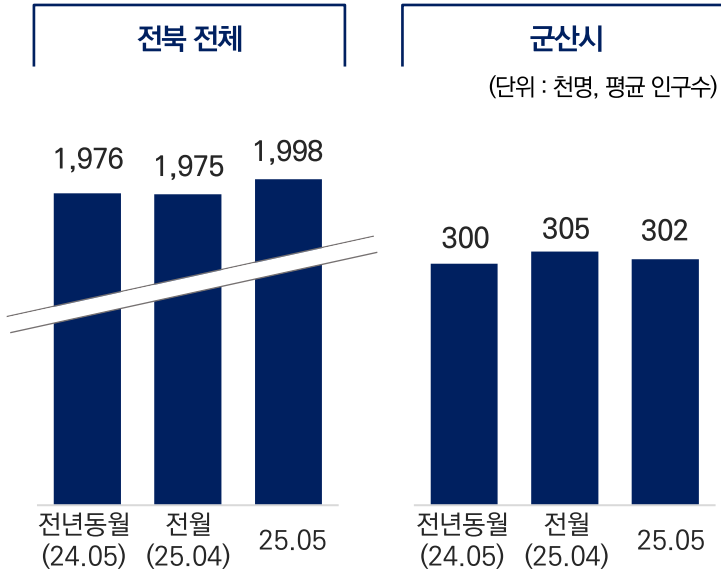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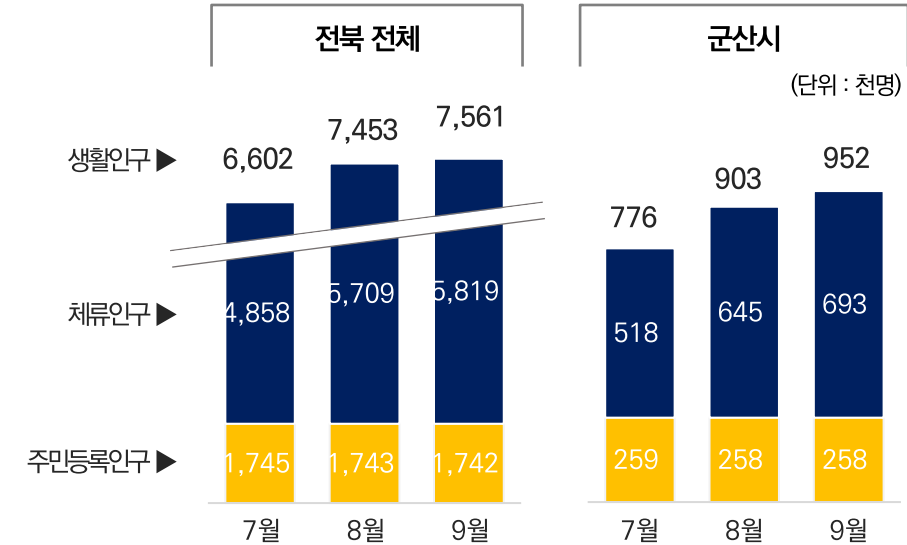
행안부 기준 체류인구

개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한 기준에 따라 집계한 연구
분석 방법	주민등록인구와 KT통신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안전부 법제화 생활인구 기준에 따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모두 합한 인구

VS

실 생활인구

개념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
분석 방법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업무, 관광, 의료, 교육, 쇼핑 등 일시적으로 특정지역을 찾아 행정 수요를 유발하는 인구



3. 실 생활인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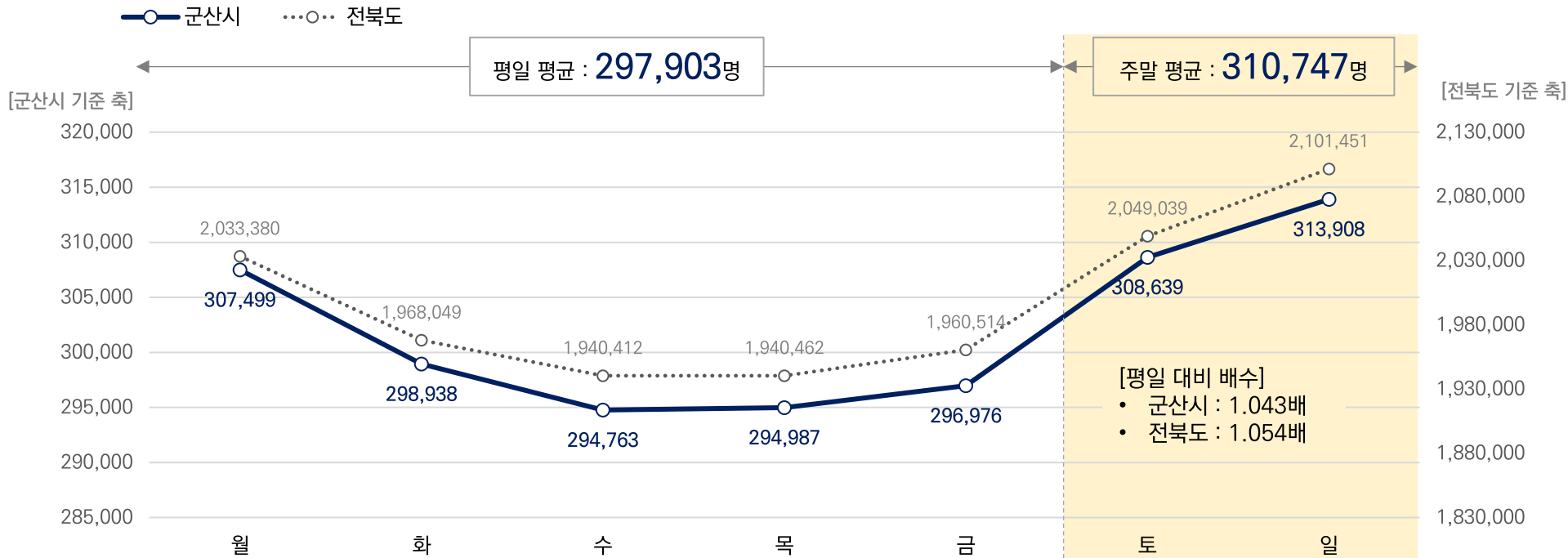
실 생활인구 특성 - 요일별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생활인구 데이터 추출)

- 실 생활인구의 주간 변동은 수요일을 최저점으로 유지되다 주말에 상승 후 월요일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이러한 추이는 전북도 전체와 유사한 패턴으로 확인됨
(주말의 평일 대비 배수 - 군산시 1.04배 | 전북도 1.05배)
- 이러한 패턴은 군산시가 업무/교육 관련 활성화 대비 주말 방문의 활성화가 더 높은 도시임을 유추할 수 있음

요일별 생활인구 변화

(단위 : 명, 2025년 5월)



3. 실 생활인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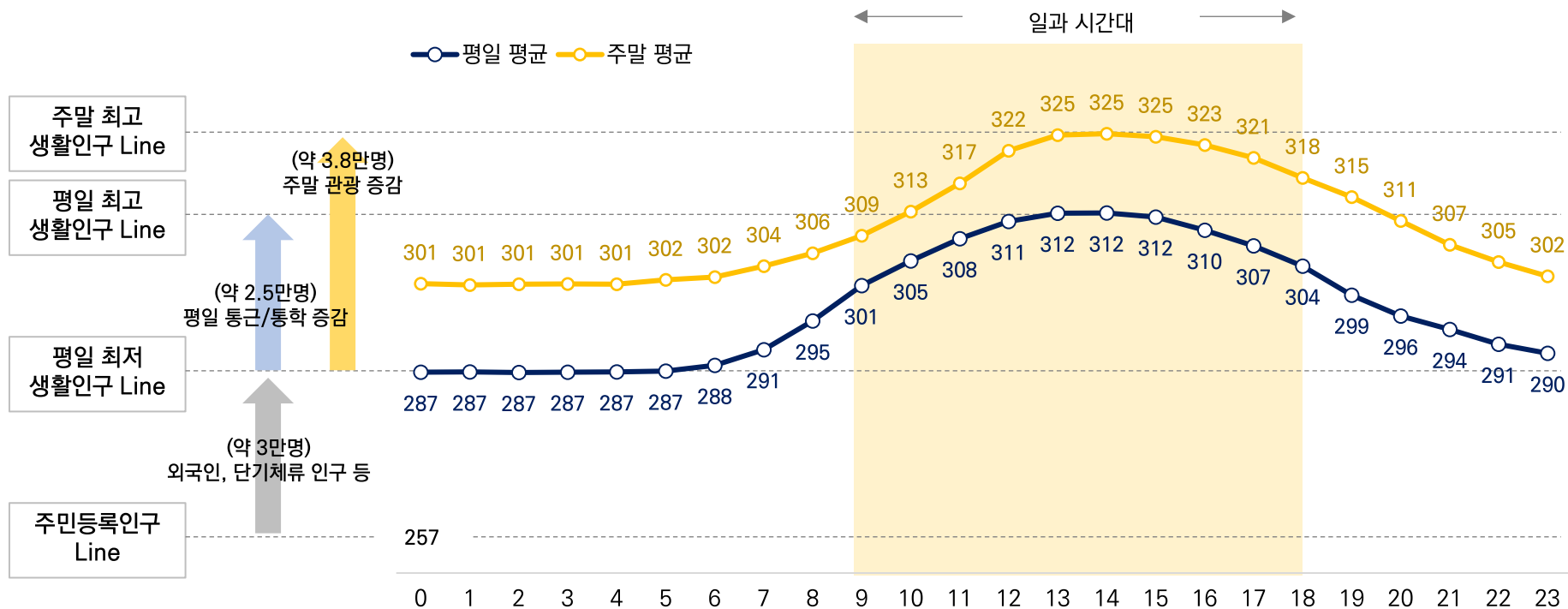
실 생활인구 특성 - 시간대별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생활인구 데이터 추출)

- 평일 & 주말 모두 일과 시간대에 인구 증가하다 오후 2시경 최고치를 달성하고 이후 하락하는 패턴
- 평일 기준 최소 인구수 대비 최고 약 2.5만명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 군산시로 유입되는 통근/통학 인구수를 가늠할 수 있음
- 주말 기준 최소 인구수 대비 최고 약 3.8만명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 군산시로 유입되는 주말 방문 인구수를 가늠할 수 있음

시간대별 생활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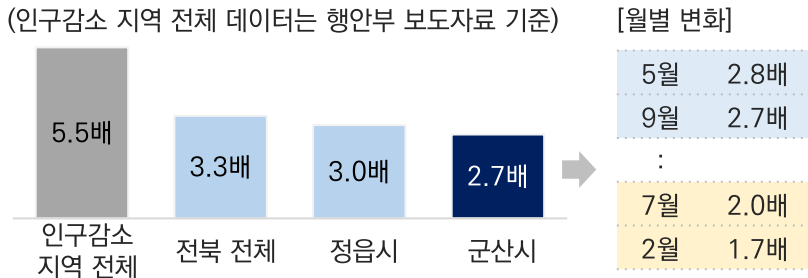
(단위 : 천명, 2025년 5월)



군산시 생활인구 분석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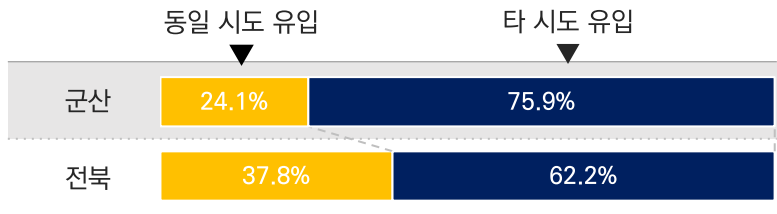
군산시의 거주인구 대비 생활인구의 활성화 수준(체류인구 배수)은 인구감소지역 및 전북도 전체 대비해서도 낮은 수준

- ✓ 월별 변화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봄(5월 2.8배)과 가을(9월 2.7배)의 체류인구 증가가 가장 크며 겨울(2월 1.7배)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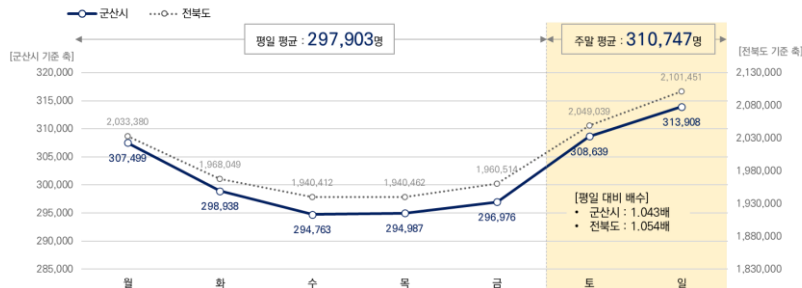
전북도는 도 내에서의 업무 및 가까운 관광 목적이 더 많으나, 군산시는 보다 전국 권역에서의 유입력을 가지는 도시의 특징

- ✓ 전북도 등 체류인구 배수가 낮은 지역일수록 타 시도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향을 보임
- ✓ 그러나 군산시는 체류인구 배수는 낮으나 타 시도 유입 비중이 높은 특징



업무/교육 관련 유입 대비 주말 방문의 활성화도가 더 높은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평일 2.5만명, 주말 3.8만명의 피크타임 인구 증가 패턴을 보임

- (생활인구 기준)
- ✓ 평일 평균 29.7만명 | 주말 평균 31.0만명
 - ✓ 평일 최고 31.2만명 | 주말 최고 32.5만명
 - ✓ 군산시는 남성 및 20대의 활력도가 보다 높은 경향



군산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CHAPTER

II 생활 인구 분석

[PART 1] 군산시 단위

[PART 2] 읍면동 단위



1. 실 생활인구 분석

생활인구 및 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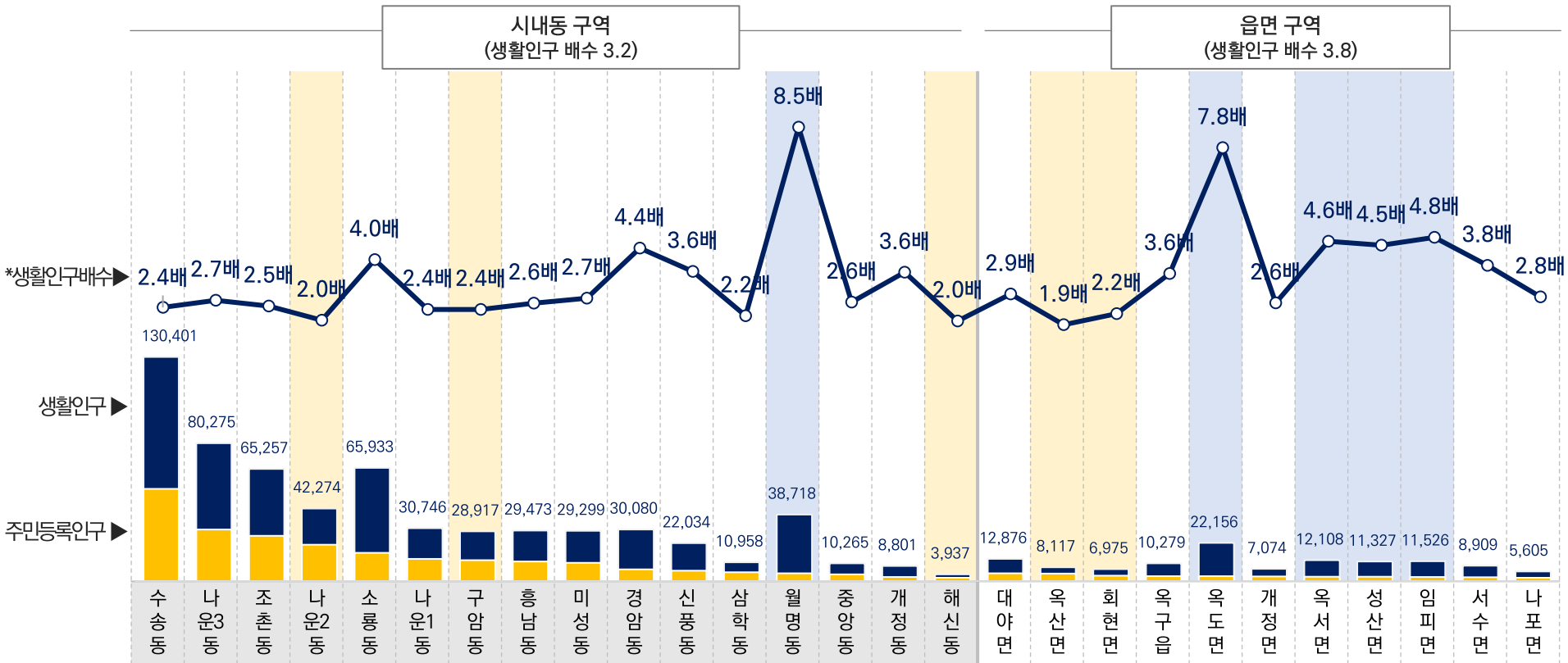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생활인구 데이터 추출)

- 생활인구 배수는 월명동 > 옥도면이 7배 이상으로 크게 높으며 다음으로 읍면 구역 중 임피면>옥서면>성산면 순
- 시내동 구역 중에는 경암동, 소룡동이 4배수 이상으로 높음

*생활인구배수 = 생활인구 수 / 주민등록인구 수

생활인구 및 생활인구 배수

(단위 : 유니크 인구수, 2025년 5월)



1. 실 생활인구 분석

생활패턴별 인구 정의

- 생활인구를 각 시간대의 체류 패턴을 기반으로 거주인구, 통근/통학인구 및 방문인구로 구분하여 정의함

생활인구 체류 패턴에 따른 특성 분류



거주인구

오후 7시 ~ 익일 오전 8시59분
사이에 가장 많이 체류한
지역을 거주지로 하여, 해당
시간 및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



통근/통학인구

오전 9시 ~ 오후6시59분
사이에 가장 많이 체류하는
지역을 근무지로 하여, 해당
시간 및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



방문인구

거주지나 통근/통학지가 아닌
지역에 머무르는 인구

패턴
정의
기준

1. 실 생활인구 분석

생활인구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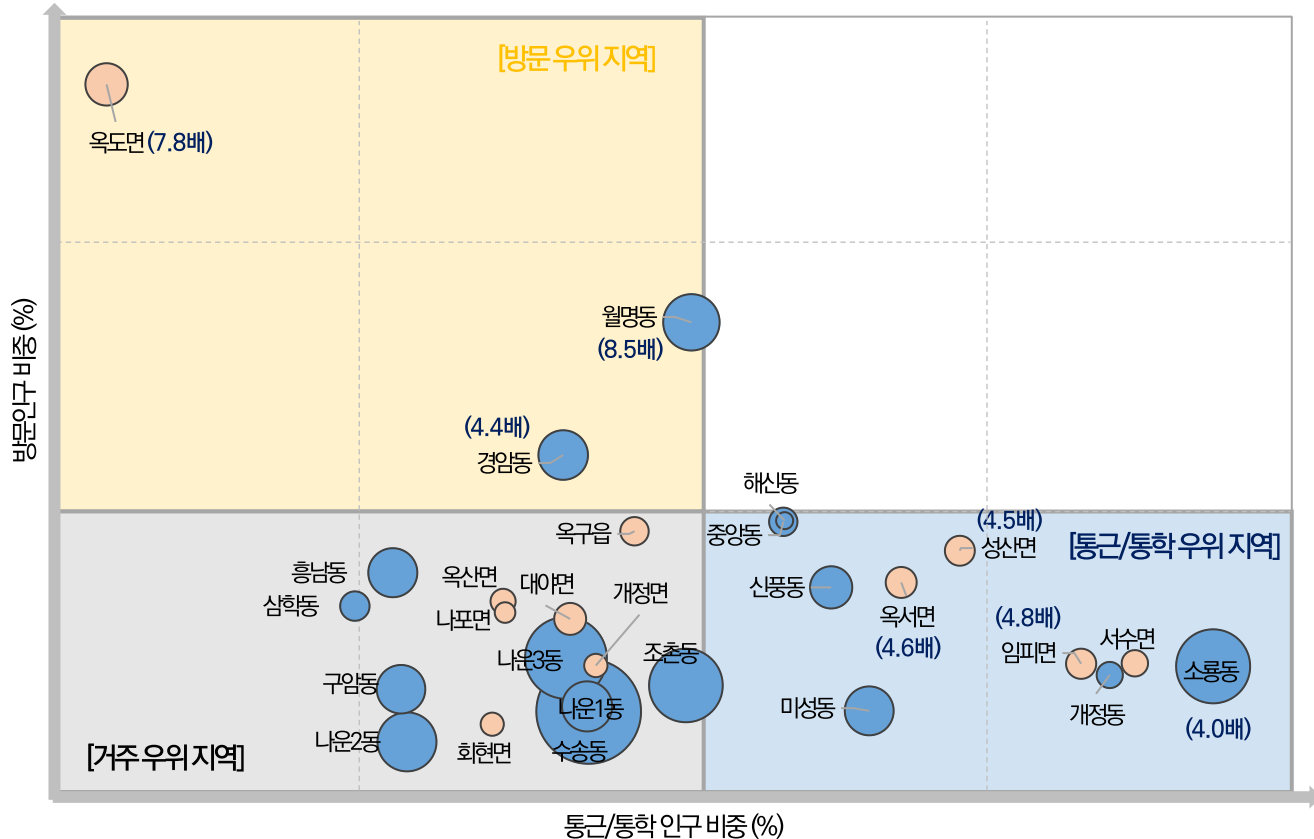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생활인구 데이터 추출)

- 통근/통학 우위 지역은 생활인구 약 4배수 정도의 활성도를 띄고 있으며, 소룡동 > 서수면 > 개정동 > 임피면 순
- 방문 우위 지역은 생활인구 배수 7배 이상으로 높은 옥도면, 월명동 등이 포함됨
- 인구규모가 가장 큰 수송동, 나운동, 조촌동 등은 거주 우위 지역

생활인구 패턴별 비중

(단위 : 유니크 인구수 %, 2025년 5월)

● 원의 크기 : 생활인구 수 ● 시내동 지역 ● 읍면 지역 (괄호 안은 생활인구 배수)



[방문 우위 지역]

- 관광을 포함한 일회성 방문이 잦은 지역적 특징
- 생활인구 배수가 가장 높은 특징을 나타냄
- 옥도면, 월명동, 경암동

[통근/통학 우위 지역]

- 직장인 통근이 발생하는 업무 지구 또는 학생들의 통학이 빈번한 학군 지역의 특징
- 생활인구 배수가 거주 특성의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약 4배수)
- 소룡동, 서수면, 개정동, 임피면, 성산면, 옥서면, 미성동 등

[거주 우위 지역]

- 거주인구 비중이 높은 Bed Town의 특성을 띄는 지역
- 생활인구 배수가 가장 낮은 특징 (약 2배수)
- 인구수가 높은 주요 시내동 지역이 주로 포함

1. 실 생활인구 분석

통근/통학 인구 비중 - 히트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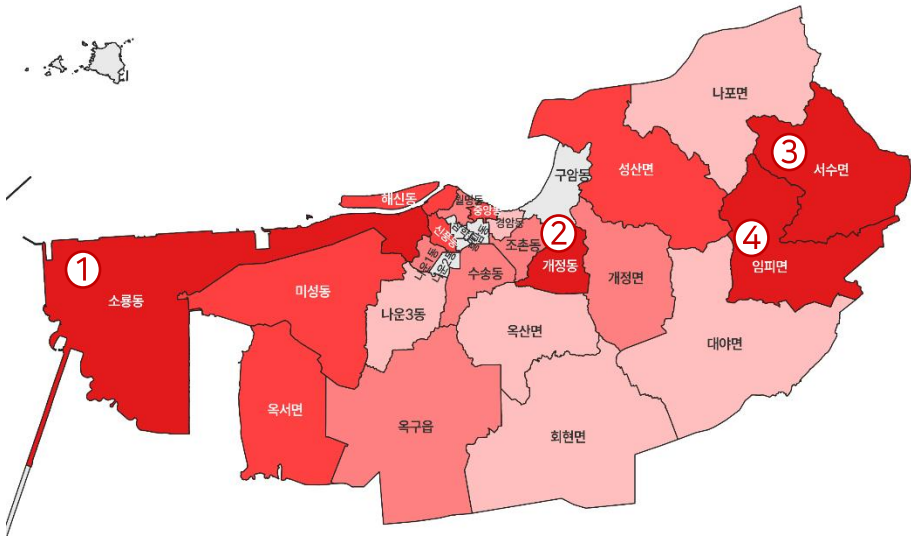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생활인구 데이터 추출)

생활인구 - 통근/통학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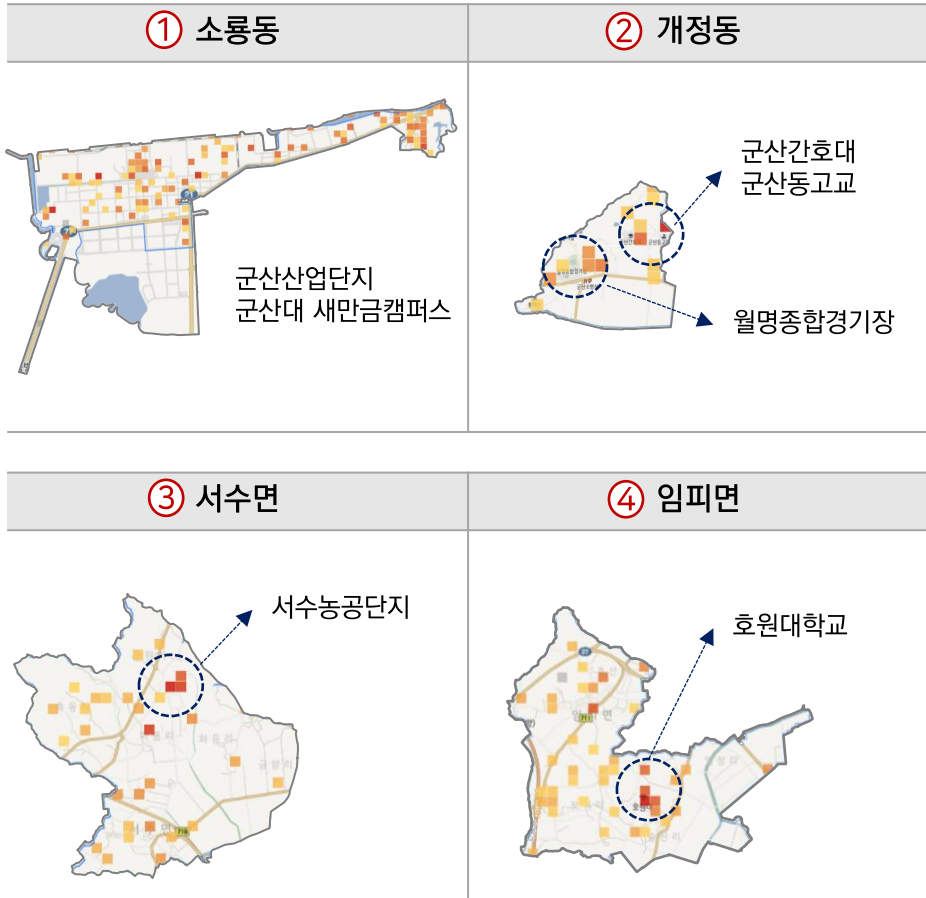
[통근/통학 상위 지역]

- 직장인 통근이 발생하는 업무 지구 또는 학생들의 통학이 빈번한 학군 지역의 특징
- 생활인구 배수가 거주 특성의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약 4배수)
- 소룡동, 서수면, 개정동, 임피면, 성신면, 옥서면, 미성동 등



청년비중(%)

통근/통학 비중 상위 지역 - 통근/통학인구 격자(250m) 히트맵



1. 실 생활인구 분석

통근/통학 인구 - 청년 VS. 고령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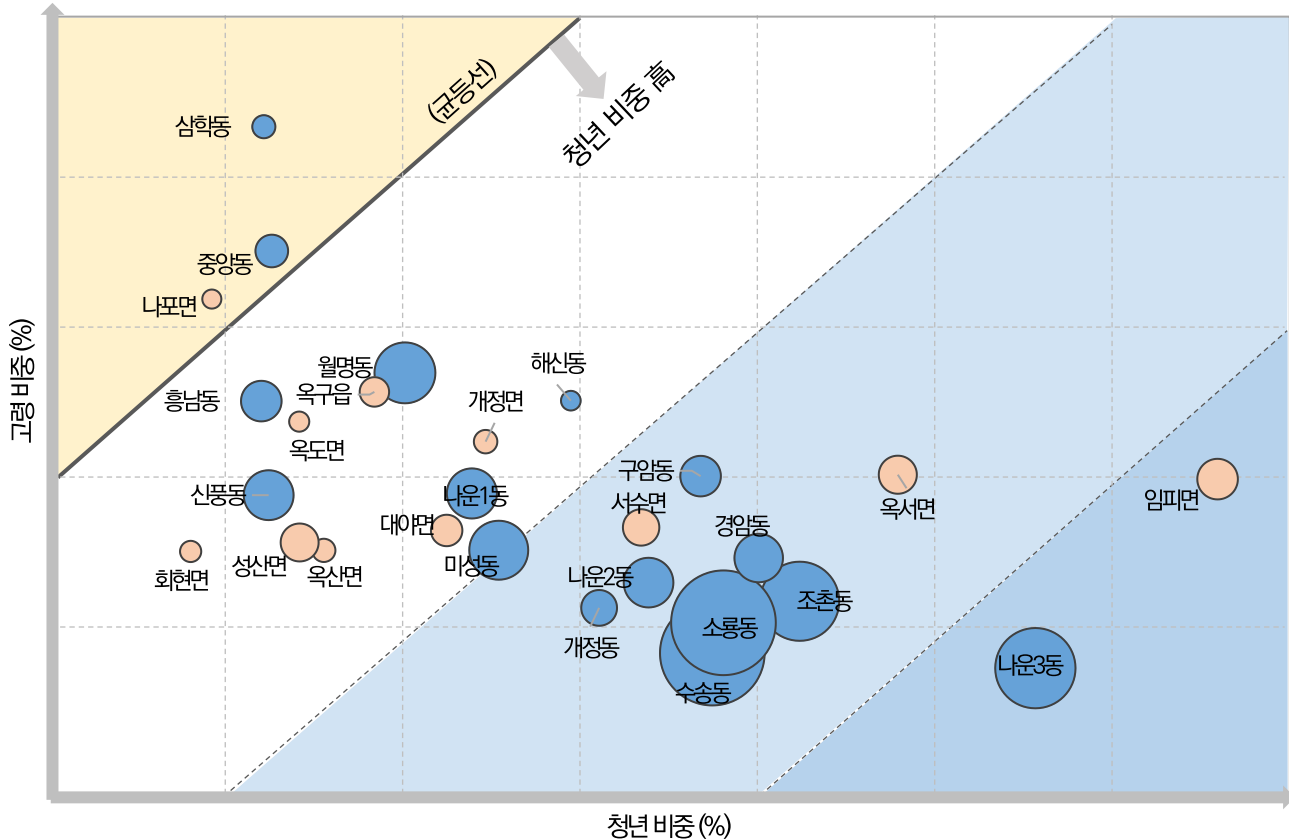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생활인구 데이터 추출)

- 통근/통학 인구는 전반적으로 청년 비중이 고령 비중보다 높은 경향을 띠
- 상대적으로 청년 비중이 더 높은 지역은 임피면 > 나운3동 > 옥서면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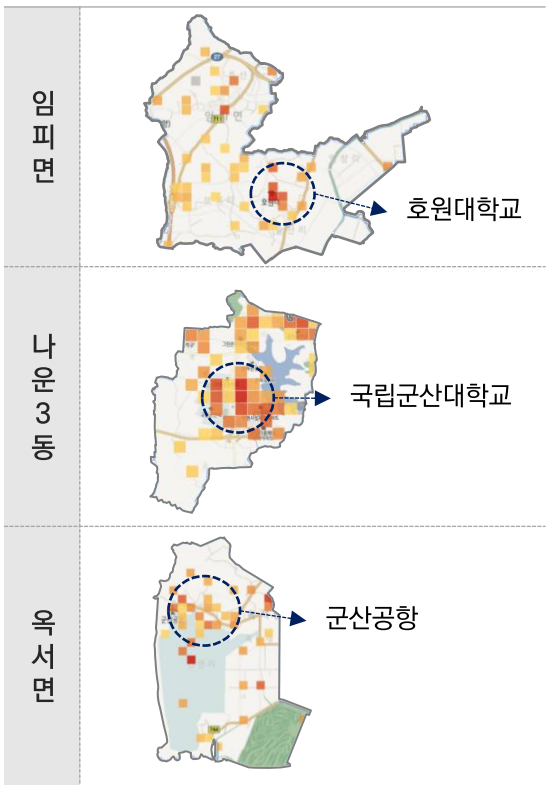
통근/통학 인구 - 청년 vs. 고령 비중 Matrix

(단위 : 유니크 인구수 %, 2025년 5월)

● 원의 크기: 통근/통학 인구수 ● 시내동 지역 ● 읍면 지역



[청년비중 상위지역 격자(250m) 히트맵 - 통근/통학인구]



1. 실 생활인구 분석

방문 인구 비중 - 히트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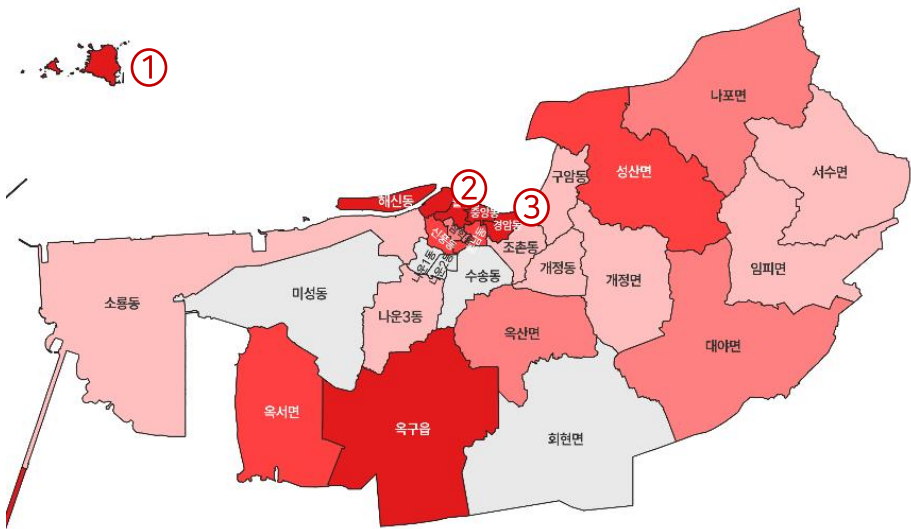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생활인구 데이터 추출)

생활인구 - 방문인구 비중(%)



[방문 우위 지역]

- 관광을 포함한 일회성 방문이 잦은 지역적 특징
- 생활인구 배수가 가장 높은 특징을 나타냄
- 옥도면, 월명동, 경암동



청년비중 (%)

방문인구 비중 상위 지역 - 방문인구 격자(250m) 히트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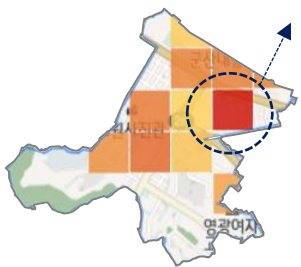
① 옥도면

고군산군도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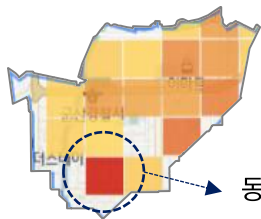
② 월명동

군산내항



③ 경암동

동부시장



1. 실 생활인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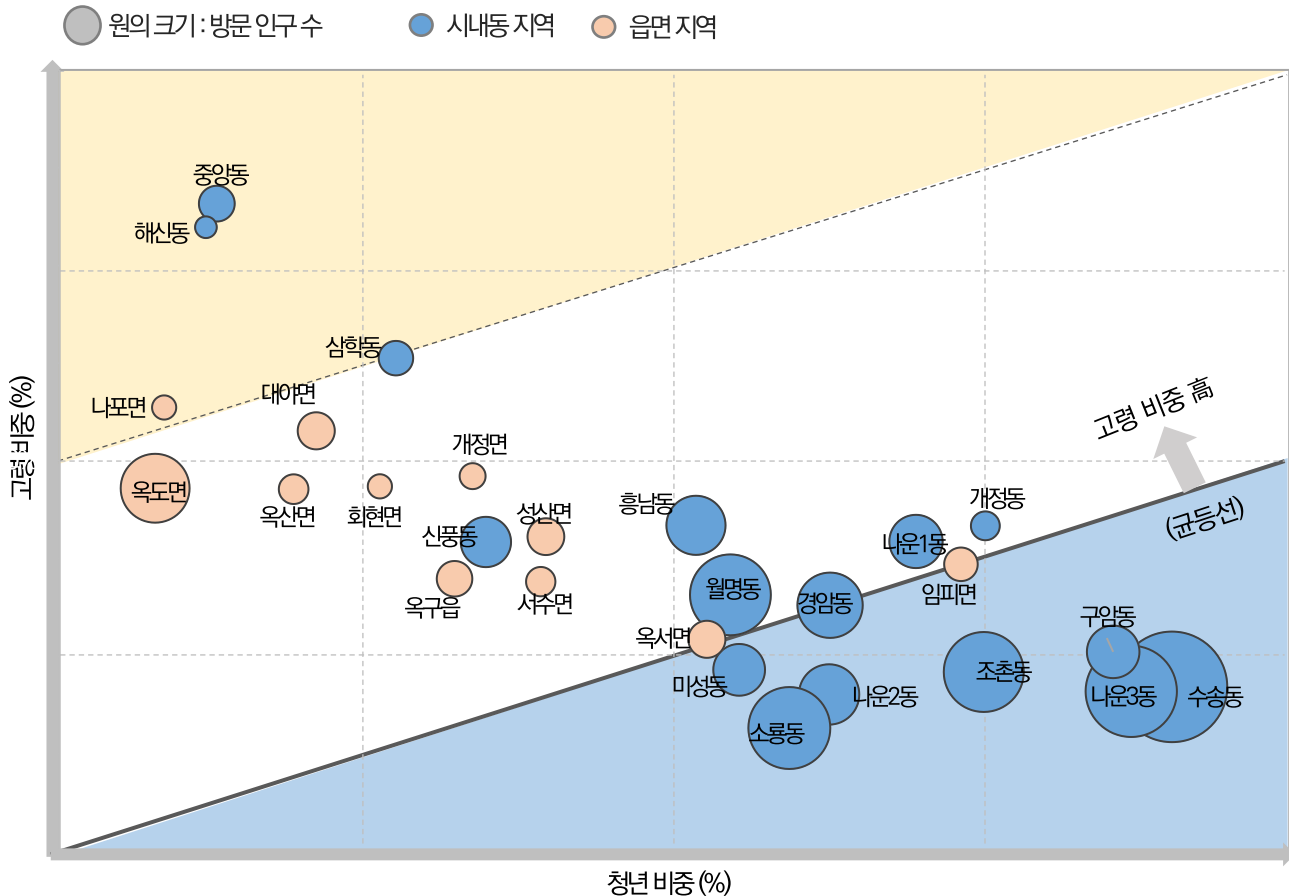
방문 인구 – 청년 VS. 고령 비중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생활인구 데이터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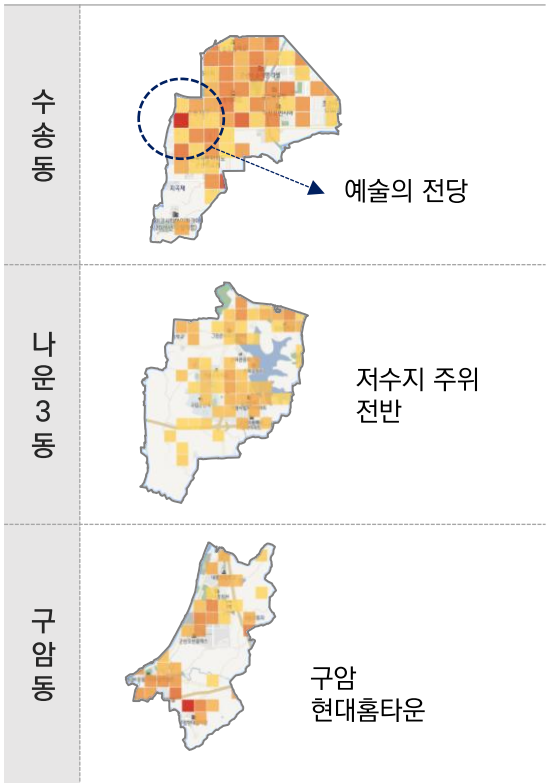
- 방문 인구는 전반적으로 고령 비중이 청년 비중보다 높은 경향을 띠
- 상대적으로 청년 비중이 높은 지역은 수송동 > 나운3동 > 구암동 순으로 나타남

방문 인구 – 청년 vs. 고령 비중 Matrix

(단위 : 유니크 인구수 %, 2025년 5월)



[청년비중 상위지역 격자(250m) 히트맵 - 방문인구]



1. 실 생활인구 분석

생활인구 이동 경로 - 시내동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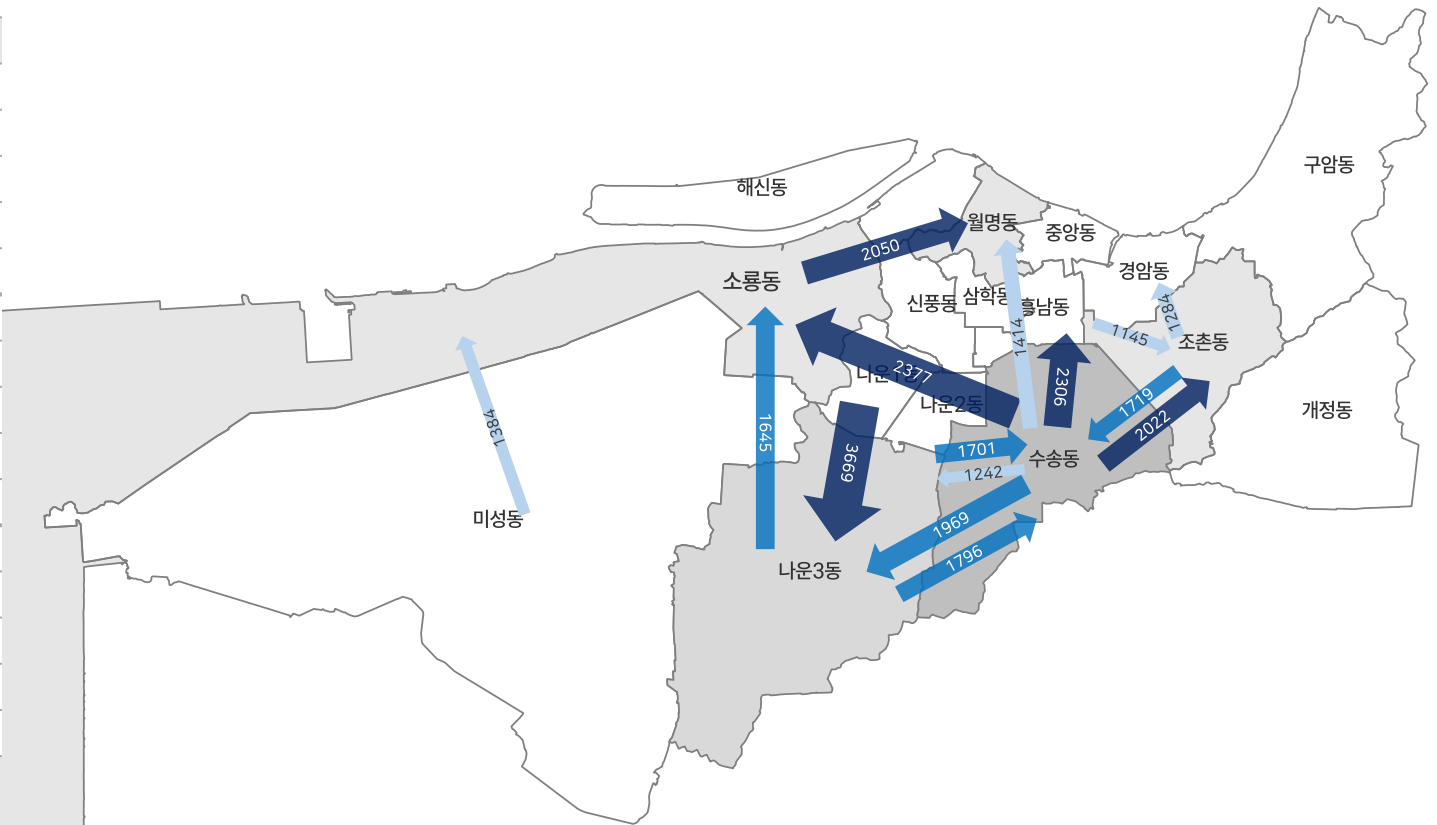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생활인구 데이터 추출)

- 시내동 구역의 이동 상위 경로는 단일로는 나운1동 → 나운3동이 가장 높으며,
- 주로 수송동 간의 이동 또는 소룡동과의 이동이 높은 규모를 차지

생활인구 유입 - 시내동 구역 상위 15개 경로

(단위 : 명, 2025년 5월, 평일 기준)

이동 경로	인구수
나운1동 → 나운3동	3,669
수송동 → 소룡동	2,377
수송동 → 흥남동	2,306
소룡동 → 월명동	2,050
수송동 → 조촌동	2,022
수송동 → 나운3동	1,969
나운3동 → 수송동	1,796
조촌동 → 수송동	1,719
나운2동 → 수송동	1,701
나운3동 → 소룡동	1,645
수송동 → 월명동	1,414
미성동 → 소룡동	1,384
조촌동 → 경암동	1,284
수송동 → 나운2동	1,242
흥남동 → 조촌동	1,145



1. 실 생활인구 분석

생활인구 이동 경로 - 읍면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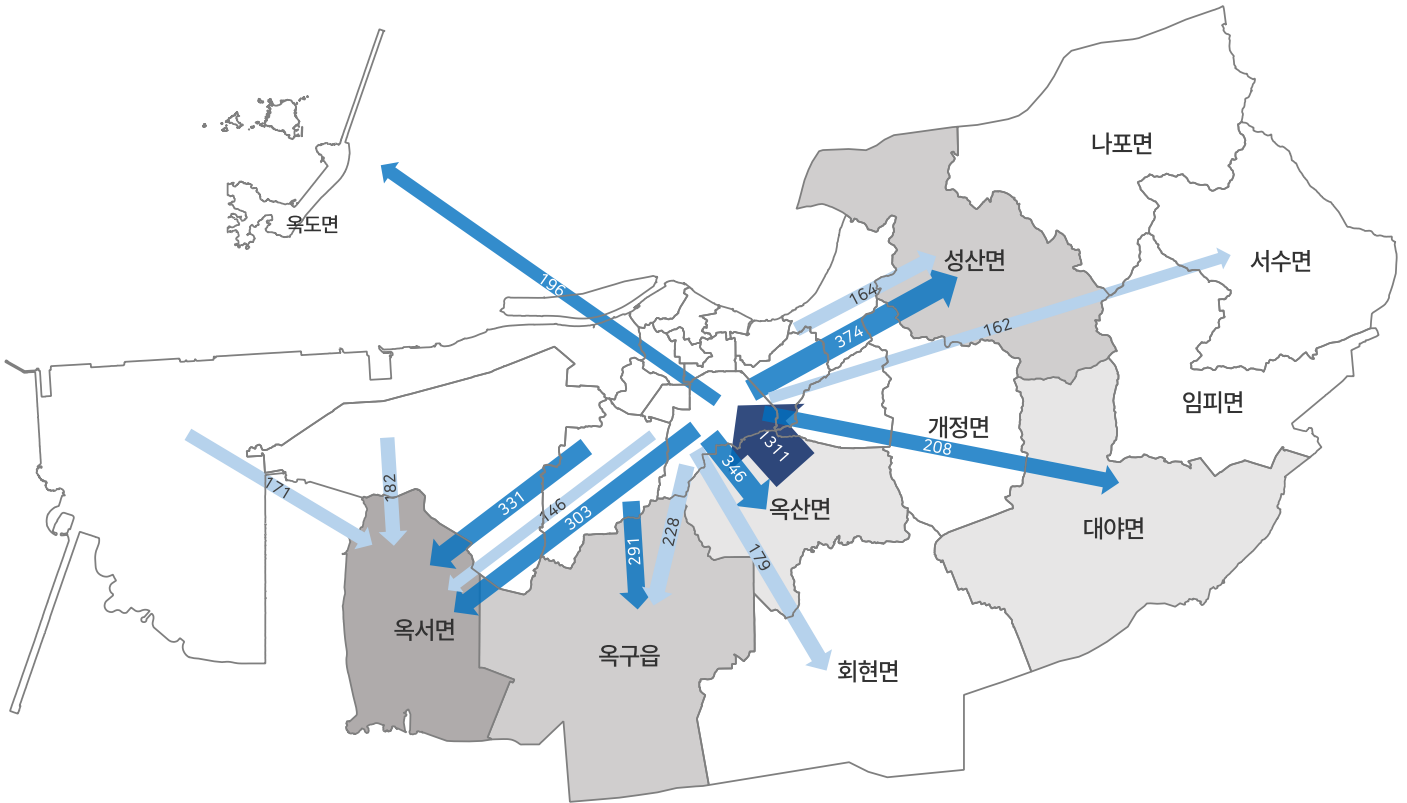
(출처 : KT 통신사 빅데이터 - 생활인구 데이터 추출)

- 읍면 구역의 이동은 옥산면 → 수송동 이동이 최대 규모이며,
- 옥서면 > 성산면 > 옥구읍으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차지

생활인구 유입 - 읍면 구역 상위 15개 경로

(단위 : 명, 2025년 5월, 평일 기준)

이동 경로	인구수
옥산면 → 수송동	1,311
수송동 → 성산면	374
수송동 → 옥산면	346
나운3동 → 옥서면	331
수송동 → 옥서면	303
나운3동 → 옥구읍	291
수송동 → 옥구읍	228
수송동 → 대야면	208
수송동 → 옥도면	196
미성동 → 옥서면	182
수송동 → 회현면	179
소룡동 → 옥서면	171
조촌동 → 성산면	164
수송동 → 서수면	162
나운2동 → 옥서면	146



CHAPTER

III 생활인구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 개요



조사 대상

- 거주인구 : 주민등록증 상 군산시 시민이면서 실제 거주
- 통근/통학 체류인구 : 군산시 외 거주자이면서 월 평균 10일 이상(방학 제외) 군산시로 통근/통학하는 자
- 방문 체류인구 : 군산시 외 거주자이면서 최근 1년 내 군산시 1회 이상 방문 경험자



표본 수

- 300 표본



표본 구성

[조사 대상]

(단위 : 명)

거주인구	체류인구 (비거주자)		합계
	주민등록인구	통근/통학인구	
100	100	100	300

[성별/연령별 표본 - 거주인구만 해당]

(단위 : 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남	10	10	10	10	10	50
여	10	10	10	10	10	50
합계	20	20	20	20	20	100



조사 기간

- 2025년 8월 18일 ~ 22일



조사 방법

- 전화 및 온라인 조사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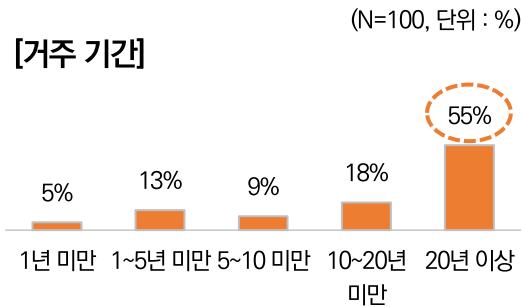
조사 결과

인구 유형별 군산시 방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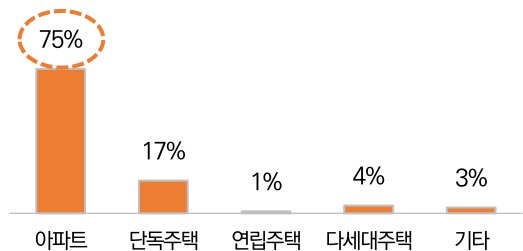
- 거주 인구 :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절반 이상이며, 주거 형태는 아파트 비중이 높음
- 통근/통학 인구 : 주중 대부분을 군산시에서 보내며 주요 활동 지역은 소룡동 > 수송동 > 개정동 순으로 높음
- 방문 인구 : 방문 목적은 관광·여행이 출장보다 많으며, 70% 이상이 1박 이상 체류함

인구 유형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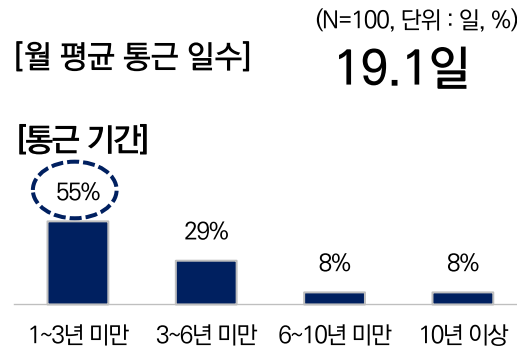
거주 인구



[거주 주택 형태]



통근/통학 인구



[통근 지역]

소룡동	14%	삼학동	4%
수송동	11%	흥남동	3%
개정동	10%	경암동	2%
미성동	8%	나운2동	2%
중앙동	8%	월명동	2%
나운1동	7%	서수면	2%
구암동	6%	임피면	2%
조촌동	6%	해신동	1%
신풍동	5%	개정면	1%
나운3동	4%	성산면	1%
		옥도면	1%

방문 인구

(N=100, 단위 : 복수%, 만원)

[방문 목적]

방문 목적	[목적별 체류 기간]	[목적별 체류 기간]		
		당일	1박2일	2박 이상
관광/여행	37%	14%	70%	16%
가족/지인 방문	37%	16%	49%	35%
지역 맛집/카페 방문	29%	34%	45%	21%
업무 출장	24%	29%	21%	50%
축제/행사/전시 참여	16%	25%	63%	12%
쇼핑	12%	42%	17%	41%

[평균 소비 금액]

23.4만원

조사 결과

생활 인프라 만족/불만족 요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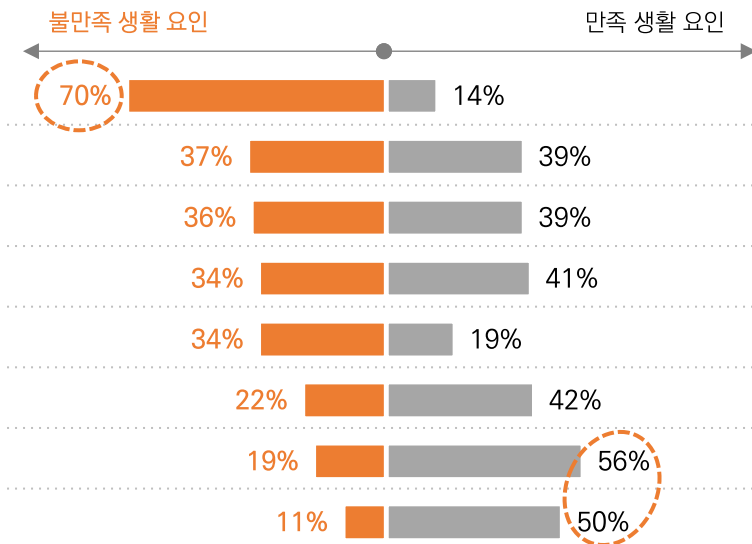
- 거주 인구 : 주거·정주 기반, 안전, 커뮤니티 만족도는 높으나, 경제·일자리, 문화·여가 부문에 대한 불만이 큼
- 통근/통학 인구 : 군산시 생활경험이 제한적이므로 만족, 불만족 요소가 특정 영역에 집중됨. 관광·특화 콘텐츠, 문화·여가 부문은 장점으로 인식되나, 경제·일자리 부족은 거주 인구와 동일하게 지적됨

생활 인프라 평가

거주 인구

→ 거주자의 실제 경험에 따른 만족/불만족 생활 인프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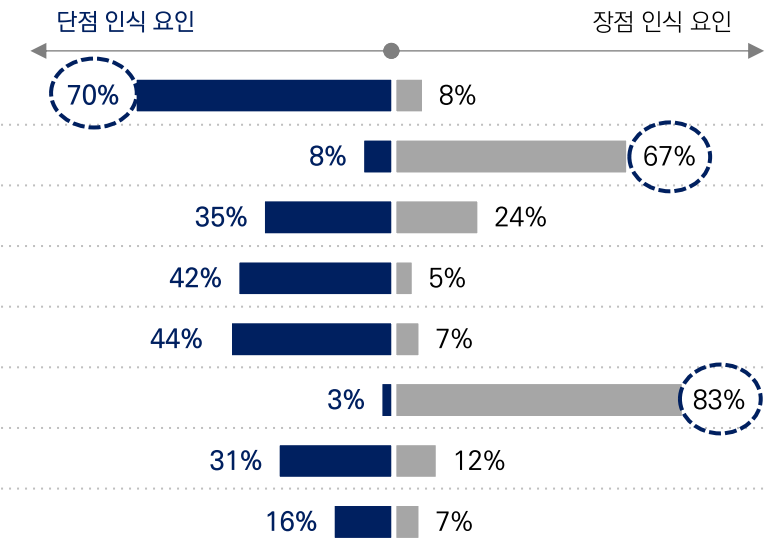
(N=100, 단위 : 1+2+3순위)



통근/통학 인구

→ 통근/통학자의 생활 인프라에 대한 간접적인 장단점 인식

(N=100, 단위 : 1+2+3순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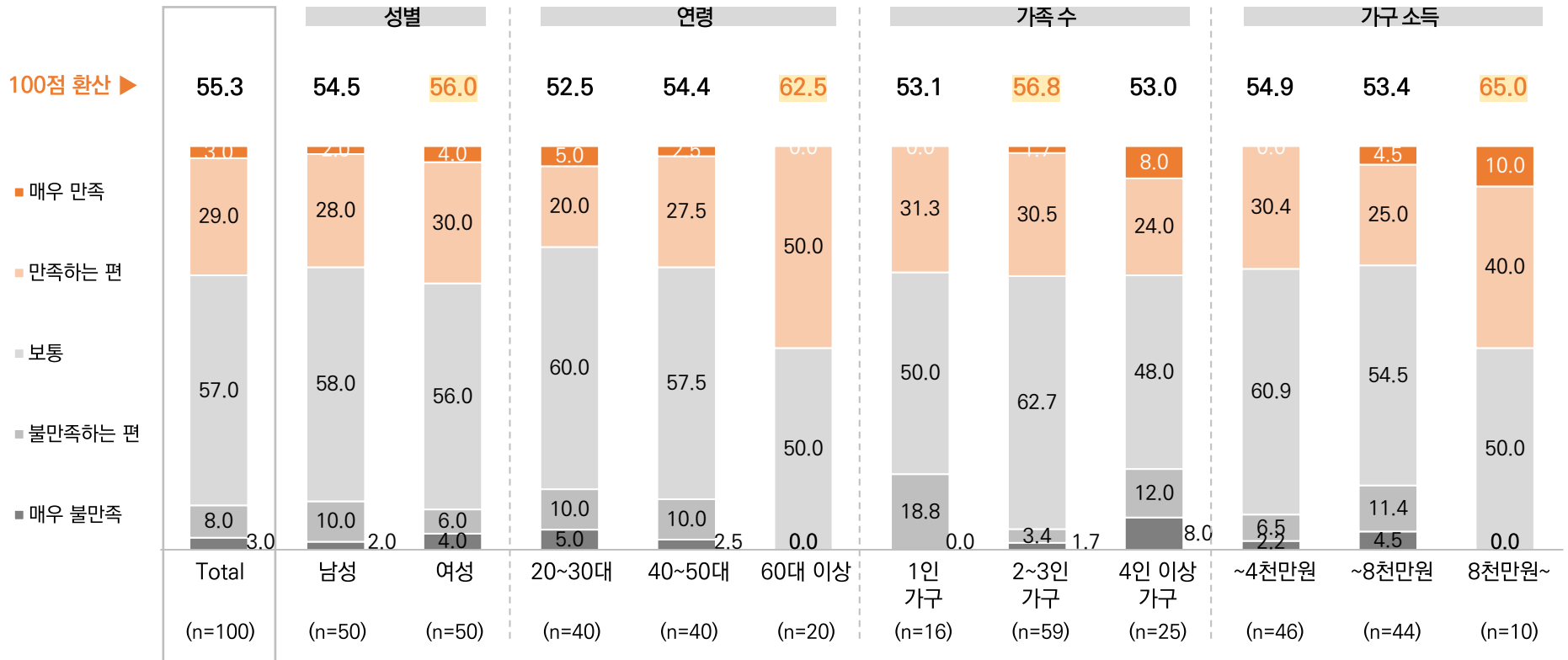
[거주 인구] 생활/환경 인프라 만족도

- 거주 만족도는 100점 환산 시 55점으로 높지 않음
- 여자 및 고연령층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2~3인 가구·고소득 가구일수록 만족도가 높음

생활 및 환경 인프라 만족도

거주 인구

(N=100, 단위 : %)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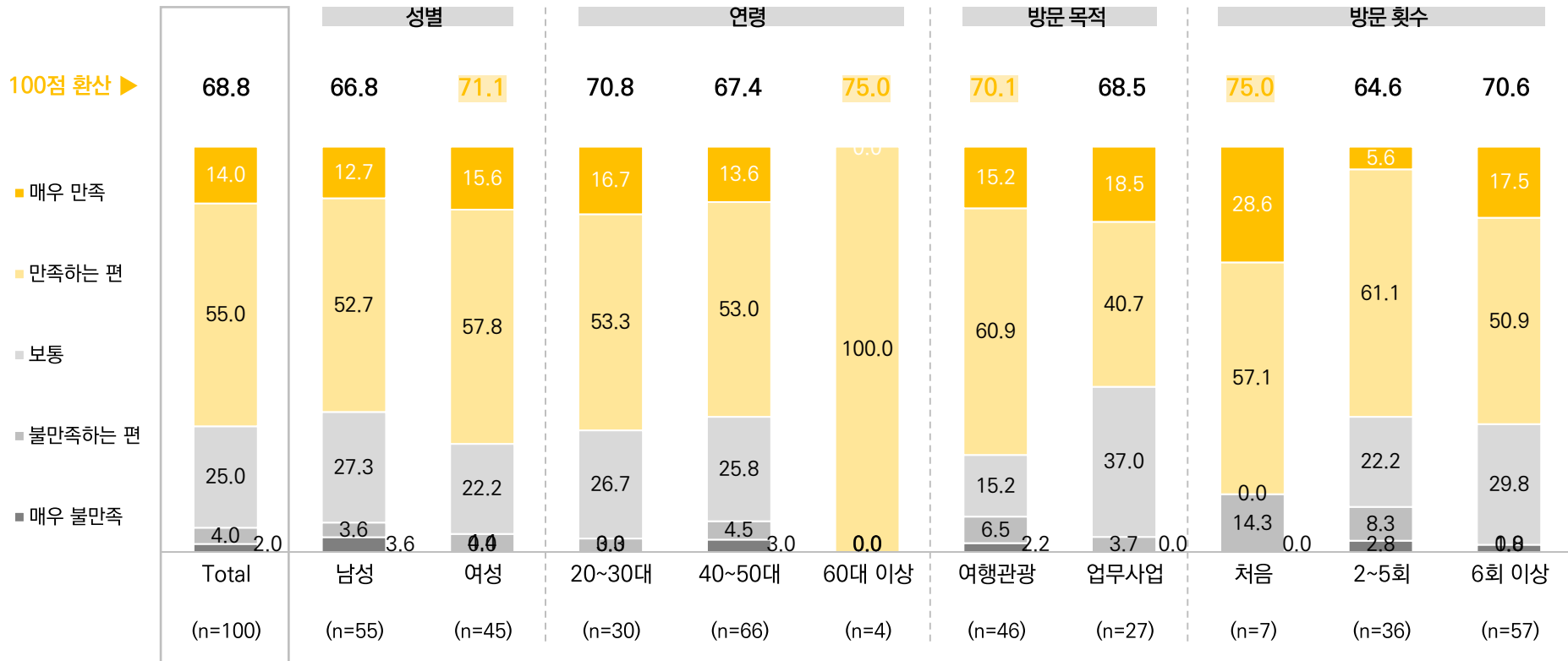
[방문 인구] 관광/업무 방문 만족도

- 관광/업무 방문 만족도는 69점(100점 환산)으로, 거주자 생활환경 만족도 대비 높은 편임
- 특히 여성, 60대 이상, 여행/관광 목적으로 처음 방문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방문 만족도

방문 인구

(N=100, 단위 : %)



[방문 인구] 만족/불만족 요인

- 만족 요인 : 먹거리·맛집 만족도가 높으며, 교통 접근성 및 즐길거리도 긍정 평가
- 불만 요인 : 젊은층은 볼거리·즐길거리 부족을 지적, 고연령층은 먹거리 외 숙박·편의시설 부족을 언급함

방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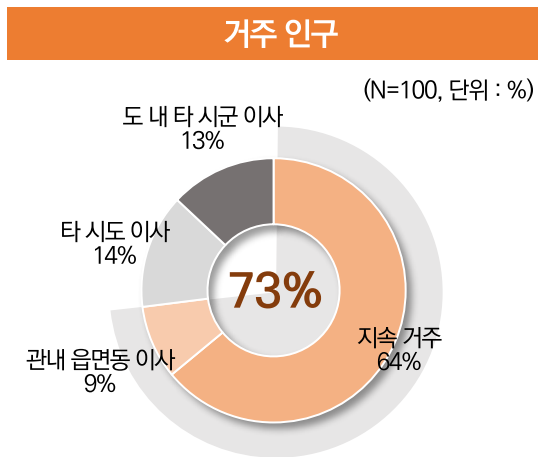
방문 만족 요인					방문 불만족 요인						
성별		연령 그룹별			Total		Total	성별		연령 그룹별	
남성	여성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남성	여성	20~30대	40~50대
(36)	(33)	(21)	(44)	(4)	[Base: 방문 만족자 (n=69), 단위: %]	[Base: 방문 불만족자 (n=31), 단위: %]	(19)	(12)	(9)	(22)	
75	76	76	77	50	75%	먹거리/맛집	35%	32	42	11	45
25	45	38	34	25	35%	교통 접근/편의성	32%	26	42	56	23
31	36	43	30	25	33%	볼거리/즐길거리	42%	37	50	67	32
33	24	38	23	50	29%	저렴한/합리적 비용	3%	0	8	11	0
22	24	10	27	50	23%	지역 특산물/쇼핑 상품 매력	23%	21	25	56	9
6	15	14	9	0	10%	관련 정보 접근 용이성	10%	16	0	11	9
8	9	10	9	0	9%	숙박/편의 시설	32%	42	17	11	41

조사 결과

군산시 거주/이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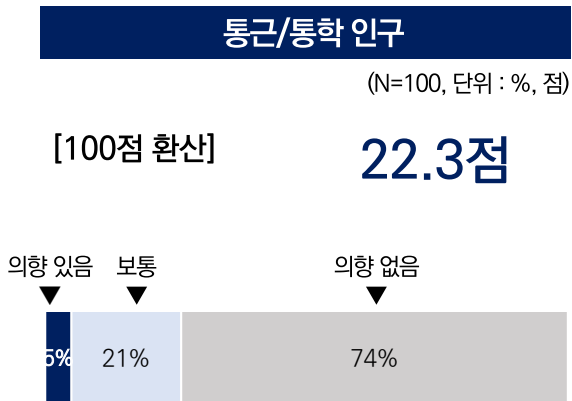
- 거주 인구의 지속 거주 의향은 73%이며 60대 이상은 95%에 달함
- 타 시도 이사 의향 14%, 전북 내 타 시군 이사 의향 13%이며, 20~30대 비중이 높음
- 통근/통학 인구의 완전 이주 의향은 5% 수준에 그침
- 방문 인구 중 군산 거주 만족도가 현 거주지보다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5% 수준

군산시 지속 거주 vs 이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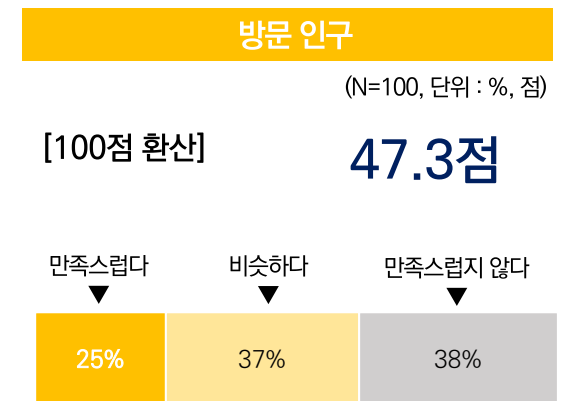
	성별		연령 그룹별		
	남성	여성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사례 수〉	(50)	(50)	(40)	(40)	(20)
지속 거주	64%	64%	48%	68%	90%
관내 이동	10%	8%	8%	13%	5%
타 시도	12%	16%	20%	13%	5%
도 내 타 시군	14%	12%	25%	8%	0%

군산시 이주 의향



	성별		연령 그룹별	
	남성	여성	20~30대	40~50대
〈사례 수〉	(54)	(46)	(18)	(82)
100점 환산	21.8	22.8	33.3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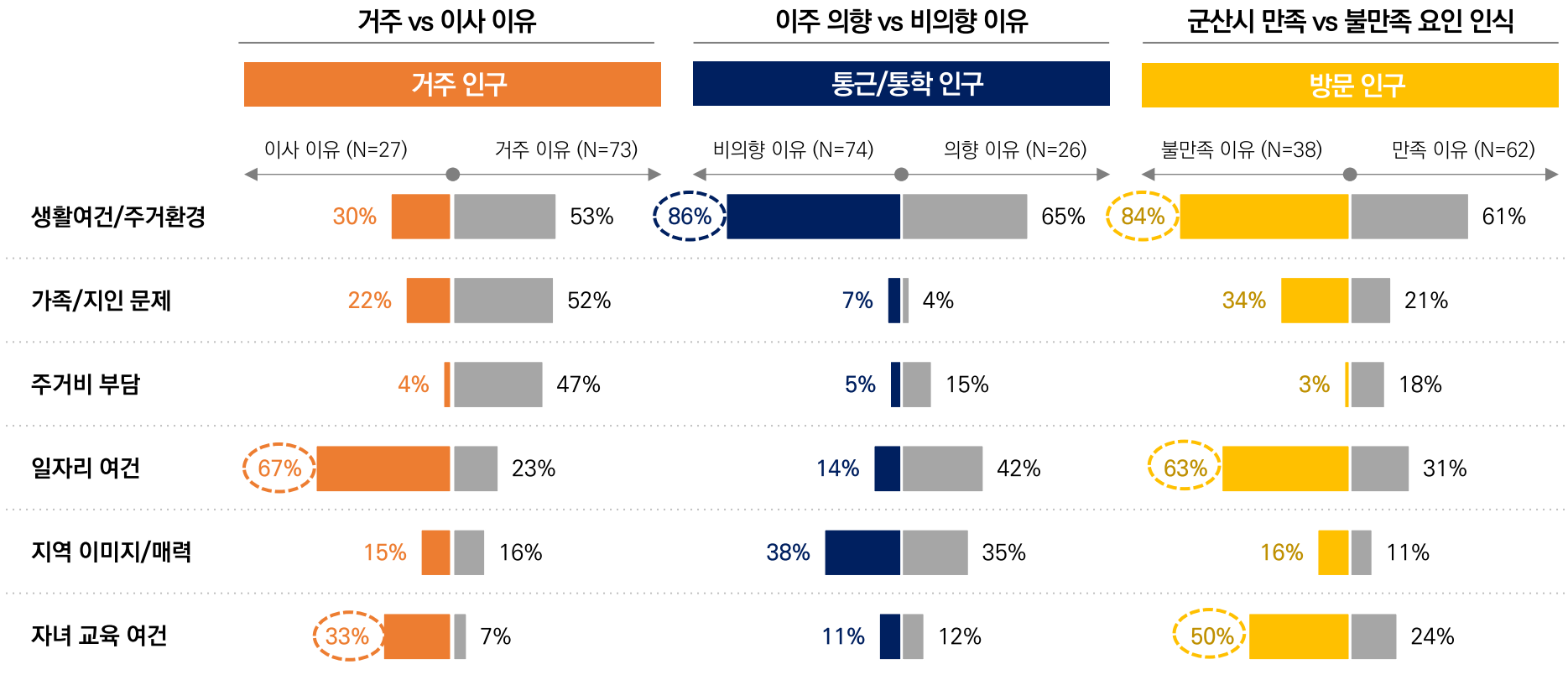
현 거주지 대비 군산시 거주 만족도 인식



	성별		연령 그룹별		
	남성	여성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사례 수〉	(55)	(45)	(30)	(66)	(4)
100점 환산	47.3	46.7	45.8	46.2	75.0

군산시 거주/이주 의향 이유

- 거주 인구 : 일자리나 자녀 교육 여건에 대한 부족이 주요 이사 이유
- 통근/통학 인구 : 생활여건/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이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 방문 인구 : 군산시의 생활여건/주거환경, 일자리,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함



생활인구 만족도 조사 결과 요약

거주 인구



거주민의 군산시 생활
환경/인프라에 대한 상세한
평가 및 개선 요인 파악

• 특히, 청년층의 거주 만족도가 낮음

✓60대 이상 고령자의 만족자는 50% 수준인 반면, 20~30대는 25%에 불과

• 일자리 및 교육환경 미흡이 청년층 유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60대 이상의 지속 거주 의향이 95%
✓반면, 20~30대의 45%는 현재 이주를 고려하고 있음

통근/통학 인구



간접 경험에 따른 군산시
생활 환경의 장단점 인식 및
이주 의향 파악

• 군산시를 관광/문화 중심 도시로만 인식

✓월 평균 19일을 통근/통학에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환경 및 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관광 및 특화 콘텐츠, 문화 및 여가 관련 인프라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
✓반면, 경제 및 일자리 인프라는 가장 큰 단점으로 평가

• 관 내 이주 매력도 낮음

✓이주 의향은 약 5% 미만에 그치며, 대다수가 군산시 생활여건 및 주거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방문 인구



방문 목적 및 행태 파악,
방문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군산시의 생활 환경 이미지

• 주로 관광/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며 만족도는 높은 수준

✓관광/여행 목적 37%, 맛집/카페 방문이 29% 수준
✓방문자의 70% 이상이 만족

• 연령대별 군산시 방문을 위한 다양한 니즈 표출

✓젊은층은 방문 불만족 요인으로 볼거리/즐길거리 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67%)
✓고연령층은 먹거리/맛집(40% 이상)과 숙박/편의시설 부족 언급

군산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CHAPTER

IV

생활인구 유형 정의 및 정책 제언



군산시 생활인구 7대 유형 도출

- 군집분석 결과 읍면동은 총 7개 유형으로 분류됨
- 유형별 특성은 거주 중심의 거점 지역형 3곳, 통근/통학 특화형 2곳, 관광/방문 특화형 2곳으로 구분됨

대상 지역	거점 지역형			통근/통학 특화형		관광/방문 특화형	
	중심 거점 동	성장 거점 동	고령 거점 읍면	산업/근로 특화지	청년 통근/통학지	고령 관광지	청년 방문지
인구 비중	46%	15%	20%	10%	4%	1%	4%
*인구 증감율	-0.4	5.7	-1.4	-2.7	-3.3	-3.8	-3.5
청년인구 비중	21.5	26.5	13.4	19.5	13.0	13.0	14.5
지방소멸위험지수	0.65 (주의)	0.78 (주의)	0.16 (고위험)	0.35 (위험)	0.12 (고위험)	0.13 (고위험)	0.17 (고위험)
생활인구 배수(배)	2.4	2.5	2.8	3.4	4.2	7.8	6.5
통근/통학 인구 비중	14.7	14.4	16.1	26.4	26.8	3.8	16.4
방문인구 비중	37.4	38.5	45.7	38.4	41.6	84.8	61.4
청년비중 (통근/통학)	30.3	29.7	17.9	25.8	32.3	17.0	25.0
청년비중 (방문인구)	26.8	26.1	15.3	21.5	22.0	11.6	21.7
주요 특징	군산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규모의 안정적 거주 지역으로 생활/상업의 중심	청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고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유형으로 성장 거점 지역	청년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가 고착화된 고령 인구 중심의 정주형 지역	사업체·종사자 밀도 높은 산업단지형 생활권으로 고용 창출 역할 크나 생활 인프라는 열악	외곽 고령 인구 지역과 인프라 지역이 결합된 혼합 지구로 젊은 생활인구의 이동이 활발함	단일 섬 지역의 자연 관광지로 특히 고령층의 방문 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소형 시내 동 지역으로 거주인구 낮으나 특정 거점 인프라로 인한 방문 인구 비중 높은 지역

* 인구 증감율 = 최근 10년 연 평균 인구 증가율(CAGR)

유형별 특징에 따른 정책 방향

- 거점 지역형 : 군산시 정주를 위한 핵심 축으로 질적 고도화 및 성장을 도모
- 통근/통학 특화형 :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 연계로 경제를 활성화
- 관광/방문 특화형 : 방문 인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광 상품 확대 및 인프라 개선

	거점 지역형			통근/통학 특화형		관광/방문 특화형	
	중심 거점 동	성장 거점 동	고령 거점 읍면	산업/근로 특화지	청년 통근/통학지	고령 관광지	청년 방문지
대상 지역	나운동 수송동	조촌동 구암동	기타 12 읍면 지역	소룡동 미성동	개정동 서수면 옥서면 임피면	옥도면	경암동 월명동
지방소멸위험지수	주의	주의	고위험	위험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인구 구조 특징	인구 유지	인구 증가	노령 비중 高	인구 감소	인구 감소	인구 감소 高	인구 감소 高
생활인구 배수	低	低	低	中	中	高	高
생활인구 패턴	청년 거주 인구	청년 거주 인구	고령 거주 인구	통근/통학 인구	청년 통근/통학	고령 방문 인구	청년 방문 인구
만족도 조사 결과	+ • 특히, 청년층의 거주 만족도가 낮음 • 일자리 및 교육환경 미흡이 청년층 유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 • 군산시를 관광/문화 중심 도시로만 인식 • 경제 및 일자리 인프라는 가장 큰 단점으로 평가		+ • 주로 관광/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며 만족도는 높은 수준 • 연령대별 군산시 방문을 위한 다양한 니즈 표출	
정책 방향	• 군산시의 핵심 축으로 기능 • 양적 팽창보다 질적 고도화 추구 • 청년 정주 기반 강화 및 미래 성장 거점		• 고령 친화적 정주환경 보장 • 지역 활력 제고 방안 마련	• 근로자 정주/생활 여건 개선 • 지역 상권 연계 강화 • 청년 정착 유도		• 방문 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관광 상품 확대와 체류형 소비 창출	

인구구조 및 생활인구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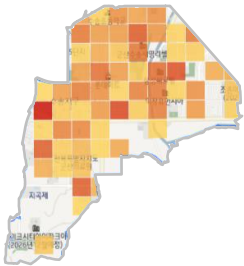
- 전체 인구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며, 청·중년층 비중이 높음
- 거주인구 비중이 높아 인구 변동이 높지 않은 '상주-유동 균형형'

산업/인프라/관광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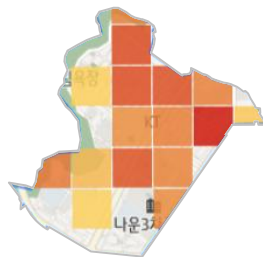
- 상업 기능이 발달하였으며 교통 및 공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 대형 상권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 의료·교육기관 접근성도 가장 높음

[생활인구 중 '거주인구' 분포 히트맵]

수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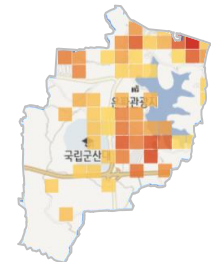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정책 배경

- 군산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양적 팽창보다 질적 고도화 추구 필요

정책 목표

- 균형 잡힌 인구 구조와 안정적 생활인구 흐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핵심거점 역할 유지
-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1

도심 생활 공간 고도화

주거단지 내 생활 SOC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 확충

수행 사례

- [세종시] 단지별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도입해 자족적 생활 기반 마련
- ✓ 행정(읍면동사무소), 문화, 복지, 스포츠 등의 공공 기능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2022년까지 11개 건립



2

지속가능 생활 인프라 조성

녹지·친환경 에너지,
자전거도로·걷기 좋은 거리 조성

수행 사례

- 덴마크 코펜하겐은 자전거 친화도시로 조성해 균형형 도시 모델 구축
- ✓ 전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한 덴마크 코펜하겐의 혁신적인 친환경 정책
- ✓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 지하철의 자전거 전용칸, 우체부 전용 자전거



3

도시 브랜드화 및 홍보

“살기 좋은 동네” 브랜드 조성,
시민 참여 홍보 캠페인 추진

수행 사례

- 서울 성수동 '핫플' 이미지 형성
- 주민·창업가 주도 홍보
- ✓ 낡은 공장과 창고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성공
- ✓ 젊은 예술가와 스타트업, MZ세대가 유입되면서 문화/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
- ✓ 지역 기업/주민 참여하는 '성수 타운매니지먼트'가 출범하는 등 주체적 노력



인구구조 및 생활인구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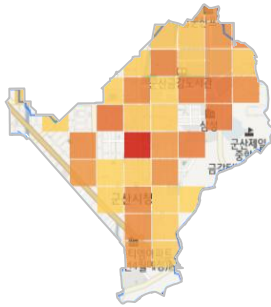
- 청년 거주 비중이 가장 높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발생하고 있는 인구 증가 지역
- 상주-유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생활 이동이 높은 지역

산업/인프라/관광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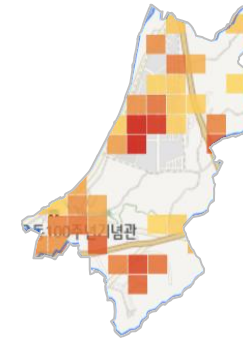
- 교육·주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인구 정착 잠재력이 큼
- 젊은 층의 쇼핑, 여행이 특히 선호되는 지역

[생활인구 중 '거주인구' 분포 히트맵]

조촌동



구암동



정책 배경

- 청년층 정착과 인구 증가가 활발한 신형 주거·생활지
- 생활 인프라가 우수해 성장 잠재력 큼

정책 목표

- 유입 청년층의 안정적 정주 기반 조성 및 미래 성장 거점화

1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 지원

공공임대주택·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
청년 주거+일자리 패키지

수행 사례

- 성남 판교 창업지원주택 → 주거와 창업 지원 결합
- ✓ 청년 창업인의 주거 안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 ✓ 건물 내에 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주거와 창업을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



2

청년 참여형 정책 프로그램

청년 의회, 청년 축제, 지역 정책 설계
참여 기회 확대

수행 사례

- 광주광역시 ‘청년 참여 예산제’
- ✓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직접 예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심사 및 결정 과정에 참여



3

청년 참여형 도시 마케팅

청년 주도의 SNS 홍보·축제 기획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수행 사례

- 부산진구, 청년 주간 행사 ‘청년이 서면’ 개최
- ✓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 과정에 함께해, 청년 스스로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꾸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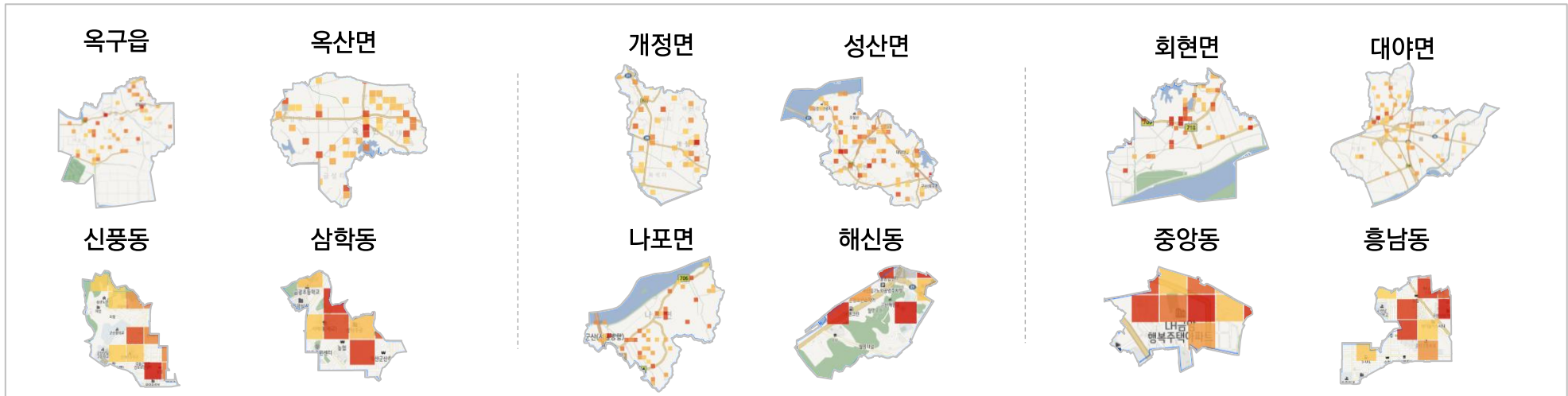
인구구조 및 생활인구 특징

- 고령 거주 비율이 높고 청년층 유출이 뚜렷
- 생활인구 유입이 제한적이고 상주 인구 중심으로 안정적

산업/인프라/관광 특징

- 1차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 및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
- 방문 수요가 많지 않아 소득 창출 어려움

[생활인구 중 '거주인구' 분포 히트맵]



정책 배경

- 고령 인구 중심, 청년 유출로 인구 감소 고착화
- 생활 인구 방문·유입 제한적

정책 목표

- 고령친화적 정주환경 보장과 최소한의 인구 유지
- 체험형 방문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

1

농촌관광·체험 프로그램 확대

농산물 수확체험, 농가 민박,
로컬 푸드 연계

수행 사례

- 완주군 '로컬푸드+농촌체험마을'
- ✓ 농산물 직매장 설치 및 운영, 농가레스토랑, CSA,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사업
- ✓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



2

귀농·귀촌 유치 지원

청년 귀촌 창업 지원, 빈집 활용 정책

수행 사례

- 전남 곡성군 '빈집 리모델링+귀촌 창업 지원'
- ✓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용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
- ✓ 귀농인들이 농업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을 제공



3

고령 친화 돌봄·의료
서비스 확대방문 의료·스마트 돌봄 체계,
응급 대응 체계 구축

수행 사례

- 세종시는 독거노인 대상 IoT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응급사고를 예방.
- ✓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 ✓ 디지털 기기 지원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인구구조 및 생활인구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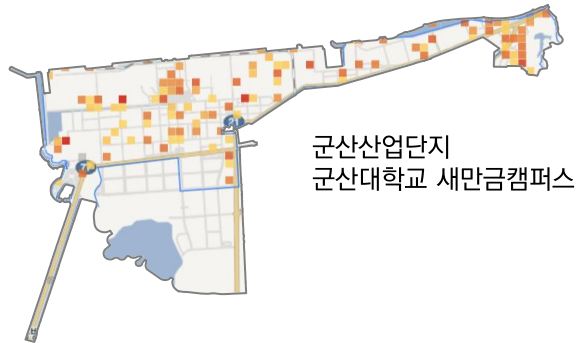
- 거주 인구 대비 통근 인구 비중이 높음
-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산업/인프라/관광 특징

- 대규모 산업단지 기반이 형성되어 단위 인구당 사업체수 & 종사자수가 가장 높음
- 주거/편의/문화 인프라 기능은 부족

[생활인구 중 '통근/통학 인구' 분포 히트맵]

소룡동



미성동



정책 배경

- 산업단지 중심, 통근·외국인 근로자 비중 높음
- 생활 인프라는 열악

정책 목표

- 근로자 정주·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상권 연계
- 통근·외국인 근로자 지원 강화로 안정적 노동력 확보

1

근로자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직주근접형/기숙사형 임대주택,
근로자 전용 복지관/문화센터,
외국인 커뮤니티센터 조성

수행 사례

- 시흥 배곧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 ✓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주택 제도



2

산업단지-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

점심·저녁 시간대 상권 연계형 이벤트,
근로자 전용 쿠폰,
퇴근 후 체류·소비 유도

수행 사례

- 울산 남구 '공단문화예술제' 개최
 - ✓ 지역 주민과 공단 근로자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화합 도모
 - ✓ 음악회, 예술 전시, 체험 활동 등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는 지역 밀착형 축제



3

다문화 통합 지원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상담센터 운영

수행 사례

- 안산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자립을 지원
 - ✓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통번역, 취업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인구구조 및 생활인구 특징

- 고령 거주 비중이 높아 인구 감소 발생
- 통근/통학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특히 청년층의 이동이 가장 활발

산업/인프라/관광 특징

- 다소 외곽 지역으로 생활 인프라는 떨어지나 대학, 공항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하는 특징으로 방문객당 소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

[생활인구 중 '통근/통학 인구' 분포 히트맵]



정책 배경

- 대학·공항 등 거점으로 청년 이동이 활발하나, 고령 거주 비중 높아 인구 감소 발생

정책 목표

- 청년 이동의 소비·활동을 지역에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인구 흐름 확보

1

청년 친화형 교통·생활 편의 개선

셔틀버스, 공용주차장, 공유교통 확충.
환승·주차·자전거 거점 개선으로
라스트마일 편의성 강화

수행 사례

- 인천 송도대학가 셔틀 운영
 - ✓ 인천대입구역에서 송도캠퍼스로의 통학 지원
 - ✓ 캠퍼스 간 교류 및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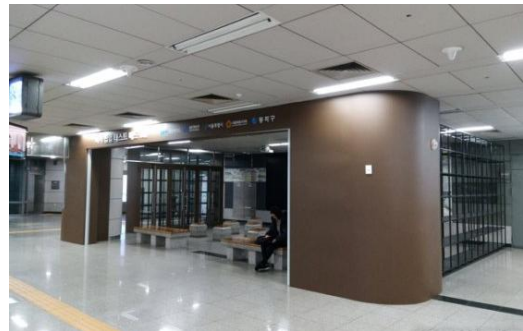
2

캠퍼스·공항 연계 창업·문화 공간

청년 창업 카페, 공연장, 공항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수행 사례

- 중앙대학교 흑석역 청년창업 문화공간
 - ✓ 청년 창업자들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일반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피드백을 제공받음
 - ✓ 캠퍼스타운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전시 공간 마련



3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

청년 로컬취업 연계,
지역 내 단기 파트타임(청년)과 상점 매칭
프로그램 운영

수행 사례

- 곡성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 관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 ✓ 청년 단체의 실험적인 사업을 지원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1 체류형 관광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숙박, 체험형 관광 확대
1일 방문객을 1박 이상 체류객으로 전환

수행 사례

- 강릉시 야간 해수욕장 운영
 - ✓ 경포 해수욕장 야간 개장
 - ✓ 강릉 경포호 '캠핑+야시장' 연계 운영



2 주말형 관광·문화 이벤트 집중 운영

주말 공연, 전통시장 페스티벌,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로 1박 유도

수행 사례

- 전주 한옥마을
 - ✓ 주말마다 전통공연과 체험행사를 운영해 주말 관광객 증가
 - ✓ 주말 길거리 퍼레이드 등



3 고령 친화형 관광 인프라 개선

무장애 보행로, 의료·안전 인프라 강화

수행 사례

- 제주 무장애 관광지 안내
 - ✓ 무장애 추천코스, 시설 제공 정보, 유형별 관광정보 등 제공
 - ✓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동반 관광객 관련 정보 제공

모두를위한제주(무장애)

무장애 시설 제공 안내 | 무장애 유모차 대여안내 | 무장애 관광지안내

모두를 위한 제주, 일인한정 제시

일인한정 유모차 대여 안내 | 유모차 대여 안내 | 유모차 대여 안내



인구구조 및 생활인구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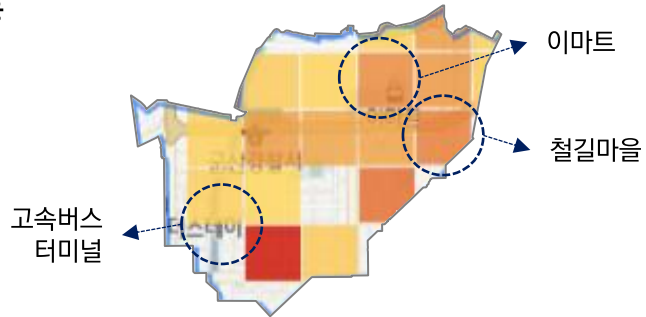
- 청년 거주 비중이 낮은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이나 방문 생활인구의 활성화로 기능이 유지되는 특징

산업/인프라/관광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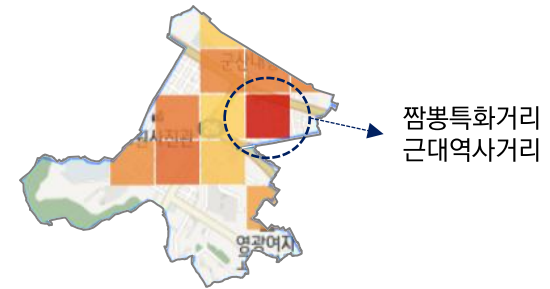
- 상업·여가 시설이 발달, 청년 유동 인구를 끌어들이는 역할
- 문화, 쇼핑 비중이 높아 관광과 상권이 결합

[생활인구 중 '방문 인구' 분포 히트맵]

경암동



월명동



정책 배경

- 소형 시내동, 거주인구는 적으나 터미널, 관광명소(철길마을, 근대역사거리 등) 청년 방문인구 많음
- 상업·여가 중심

정책 목표

- 방문 청년 인구의 소비와 체류시간 확대

1

관광·쇼핑 클러스터화

주요 관광지-전통시장-상권
연계 동선 설계

수행 사례

- 인천 차이나타운
 - ✓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문화지구, 송월동 동화마을 연계한 관광 동선 설계로 방문객 증가
 - ✓ 역사·문화 동시 즐길 수 있는 명소



2

청년 친화형/야간 문화
활성화

음악·거리예술·야간 공연·축제·
푸드트럭 거리 등

수행 사례

- 대구 '치맥페스티벌'
 - ✓ 대구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치킨과 맥주를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식음료 행사
 - ✓ 평화시장 닭뚱집 골목과 연계하여 운영



3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연계

공유자전거, e-모빌리티, 관광지 셔틀 등
청년 친화 서비스 도입

수행 사례

- 강릉시 '강릉패스'
 - ✓ 관광객을 위한 통합 서비스형 모빌리티 서비스
- 전주시: 시내버스 무제한 정기권 도입
 - ✓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 활성화



End of Document

Copyright © 2025 KMAplus® All rights reserved